(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59 1982년2월26일(금) 27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Fedruary 26 & 27,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MAR 1 1982

전대통령 암살음모단 적발

토론토 합동수사반서 2명 체포 최흥회씨 아들등 수배

전두환대통령 암살계획이 토론토에서 저지됐다.

24일 연방경찰(RCMP)·온타리오 경찰및 토론토경찰국등 3개 경찰국의 합동특별수사반은 암살음모자중 2명을 체포하고 교포 최중화씨(31)등 2명을 수배중이라고 발표했다.

찰스·스티븐·야노버(36)와 알렉산더·마이클·제롤(33)은 체포됐고, 예이산·이스라엘·크레저맨(52)은 수배됐다. 야노버(토론토 에그린톤·웨스트 거주)는 국제무기거래상이며 제롤은 로이·코헨스키 또는 마이클·마틴등의 별명을가진 지하범죄 조직단원이다.

지난1월 이북으로 도피한 최는 전한국군 육군소장 최홍회씨(미시사가 거주)의 장남으로 일명 제임스. 태권도 4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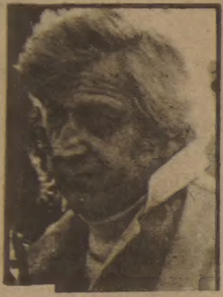
최는 부친과함께 80년 9월15일 북한을 첫 방문했다.

수사반은 2주전 야노버및 제롤집을 급습, 거사자금조로 받았던 돈중 잔액 6만8천달러(미화)를 압수했다.

최, 야노버및 제롤은 암살음모 혐의를, 야노버 및 제롤은 최와 배후조종자를 사기할 음모혐의도 받았다

수사반은 작년 8월 토론토 모 변호사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한국과 오스트리아, 네델란드, 벨지움, 서독, 마티니크, 미국, 프랑스의 경찰로부터 은밀히 협조를 받았다.

2명의 수사관은 유럽과 카리브해역에 파견되어 정보를 수집, 수사반은 각종 정보를 종합한 결과 이들의 모의대상이 한국 대통령이며 배후 조종자가 있음을 밝혀낸 것이다.



◇크레저맨(수배)

◇야노버(피체)

북한서 조종?

애초에는 진짜로 살해의사

수사반은 배후인물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북한측 대표자"라고만 말하고 있다.

최와 북한측대표자는 야노버등과 함께 토론토, 미시사가, 비엔나(오스트리아)등지에서 구체적으로음모를 모의했다고 수사반은 보고 있다. 야노버는 이달초 도미니크공화국 전복음모사건에 관련, 제임스·맥쿼터(23)와 함께 체포됐다가 1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임시 풀려났다. 토론토 거주 맥·쿼터는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한 폭력 단체 KKK단의 캐나다우두머리이다.

80년 북한방문 때부터북한정부로 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은 최홍회씨는 작년 9월에도 평양을 다녀왔다.

25일 아침 최씨 부인은 본사의 문의전화에 대해 "최홍회씨는 어제부터 안계십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읍니다."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야노버와 제롤은 25일아침10시 온타리오주 지방법원 제23호 법정에서 열린 보석청원재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재판연기를 신청, 3월4일 오전10시 재판을 허락받았다.

야노버, 제롤은 살인 음모혐의, 사기혐의, 불법취득재산소지혐의등 각6개의 혐의를 받았고, 최중화는 살인음모혐의 1개만, 그리고 잠적한 크레저맨은 불법취득재산소지및 사기등 4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재판에 나온 론·샌델리특별수사반형사는 "최는 수사의 낌새를 알아 차리고 1월초 북한으로 떠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캐나다 수사관에 체포될 경우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는 71년 이후 캐나다에 거주했고 현재직업은 수출입업체인 콤비·인터내셔널·보석제조 회사에 근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월4일부터 공판시작

"엄청난 액수 3차례 받아"

"여러명의 북한인 관련"

"이 사건에 관련된 한국인은 최중화이외에 숫자를 밝힐 수 없는 북한인들이 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이름등, 구체적 사항은 밝힐 수 없다. 이들 북한인들이 캐나다 거주자들은 아니며 현재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지 여부도 현단계로는 밝힐 수 없다"고 샌델리형사는 말했다.

"최와 야노버는 수년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이들이 배후조종격인다른 북한인들로부터 거사금조로 받은 돈은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지금까지 공작금은 세차례 지불됐다"고 그는 말했다.

제4의 인물 크레저맨은 암살음모에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경찰이 압수한 미화를 소지한 장본인이다.

야노버와 제롤은 처음에는 대통령 살해의사를 가졌으나 도중 마음이 변해 공작금만 받고 도망하기로 작전을 바꾸었다.

수사반은 도미니크 공화국 쿠데타음모사건 수사도중 한국대통령 살인음모사실을 알아냈으나 결정적화증은 변호사의 제보에 의해 굳어져 긴급 합동수사반을 편성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 이민성과 인터폴(국제경찰)의 협조도 받았으며 필요할 경우 미국정부의 협조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0년9월15일 첫 북한방문차 토론토공항을 떠나는 태권도 방문단 일행. 왼쪽부터 3번째가 최중화, 그옆이 최홍회씨.

퀘백의회 원내총무 사임

백화점서 코트훔치다 발각

전 퀘백주 의회 원내총무연던 클로드·샤론이 지난 1월30일 몬트리얼 이튼 백화점에서 120달러짜리코트를 훔친 혐의를 인정, 24일 $300의 벌금을 물었다.

샤론은 23일 원내총무자리를 사임했다.

샤론은 백화점문을 나선 직후 여자경비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도망했으며 2명의 백화점 경비원이 그를 추격, 교통이 혼잡한 다운타운 거리를 요리조리 도망가는 샤론을 몇부럭못가 체포했다.

샤론은 사건직후 이튼경비과로부터 기소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으나 22일아침 법정소환을 받았다면서 이것은 이튼백화점부부 고위층의 [illegible]결과 그를 기소하기로 결정한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토에있는 한 이튼 고위간부는 이같은결정이 이곳 이튼본부에서내려졌다는 샤론의 주장을극구 부인했다.

이튼백화점 부사장 생·작스도 이것을 자기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본부와는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클로드·샤론

한국석유값 인하 예상

국제원유값 내림세 따라

(서울24일=연합)한국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석유값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동자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값을 1%만 더내리면 석유류값을 전반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가 원유값을 배럴당 1달러를 내리면 국내석유류값을 1.42~0.3%, 4달러가 내리면 3.6%까지 인하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원유수출국인 이란은 원유값을 금년들어 배럴당 4달러 인하했으나 이란원유는 한국 수입석유의 8%에 불과하다. 사우디원유는 총수입의 53%를차지한다.

현재 한국이 수입하는원유값은 약 32~36달러선이다. 금년들어 국제적으로 공급과잉으로 원유값이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

이총영사 주의환기

"북괴의 흉책 증명"

이상훈 토론토 총영사는 25일 전대통령 암살음모사건에 관련, "여러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개탄했다.

이총영사의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살해음모사건에 경악했다. 토론토 일대 교민이 북한에 왕래하면서북괴자금을 받아 이런 끔찍한 일을 모의한 점이 더욱 한심하다. 최근 인도적 견지라는 이름으로 교포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과의 가족찾기, 태권도시범등을 주장했으나 이제 이런것들이 위장된 북괴의 흉책임이 증명됐다. 캐나다 수사당국이 최홍회 아들 최중화 가족을 수색, 흉악한 음모를 적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한다. 앞으로 교민사회는 북한방문 운운에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상훈 총영사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오늘의 예금금리 (2월6일 현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59일	13.75%	12.5~13.5%
	60~89일	14%	12.75~13.75%
	90~179일	14.25%	13~14%
	180~1년	14.5%	14.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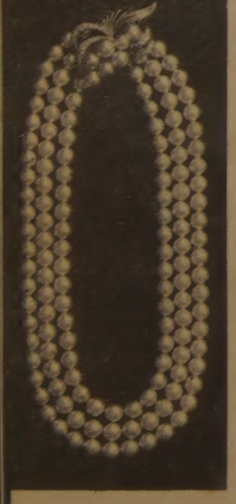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축
개업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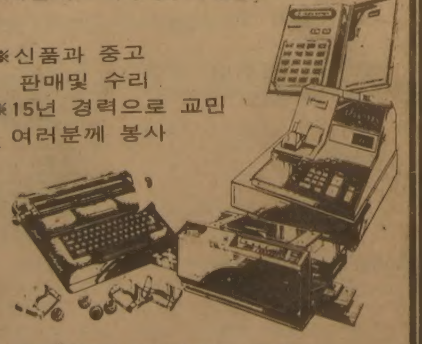


—세계적인 명소 — EATON센타와 같이 태어난 「고려보석」
—성실한 「써비스」, 신용과 권위를 폐사의 모토로 하고 있는 「고려보석」은 교민의 긍지를 함께 지니고 있읍니다.
카나다보석 협회 회원
고려보석
EATON CENTRE
(Level 1분수대 옆)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수리중 차 대여
○ 완전한 차체수리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295～6 (R)671－0938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이철수씨 救命문제논의

이철수救命후원회, 敎會와의 協力방안등 모색
"여론환기, 關心모으기 위한 運動을 벌여야"

▲이철수구명운동후원회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이철수씨의 옥중인터뷰비디오를 보며 교회를 통한 구명운동을 논의했다. 오른쪽 첫번째가 이철수씨의 사촌 이대길씨.

이철수구명후원회(회장·윤재근)는 20일 하오1시30분 아가페펠로우쉽교회에서 교회를 통한 구명운동 회의를 가졌다.

이자리에는 후원회회원인 패티·장, 크리스티나·최등과 한국서 방문한 이철수씨의 사촌형 이대길씨등 6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78년에 제작된 이철수씨의 인터뷰비디오를 20분간 본후 교회와의 협력관계등 구명운동을 논의했다.

원래 60여교회단체에 편지로 '알려이날 기도회등 교제의 적극적참여를 목적으로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후원회원 패티·장씨가 말했다.

대신 이날 지난해 11월27일 이철수씨의 모친과 함께 감옥에 있는 이씨를 면회했던 이대길씨등은 미국에서 뿐 아니라 본국매스컴이나 교계및 각계기관을 통해서 폭넓은 구명운동을 할수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세인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켜 장기간의 구명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보상액에도 민족적 차별
재팬호텔화재 유가족 항의

(서울24일=연합)지난 8일 도꾜의 뉴재팬 호텔에서 있은 화재로 희생당한 8명의 한국인사망자들의유가족들은 23일 일본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호텔측이 보상액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뉴 재팬호텔이 한국인 희생자에 각 2천만엔씩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으나 이는 미국, 영국 및 일본 국적의 희생자들에 주는 보상보다 적어 이는 엄연한 차별대우라고지적했다.

전 보사부장관 김태동씨등 8명의 희생자를 낸것은 한국민에 대한 거대한 손실이며, 예를 들어 전자산업 협회직원인 조순(48)씨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소한 5천3백만엔이 지급돼야 한다고 유가족들은 주장했다.

이관 박사에
영국명예관리임명

(서울24일=연합)한국의 한 교육자가 오는 3월 5일 주한 영국대사 존·모간에 의해 대영제국 명예관리임명을 받는다고 24일 서울의 영국대사관이 밝혔다.

울산공대 학장 이관 박사는 한·영관계 개선에 지대한 공헌이 인정되어 퀸·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임명을 승인하였다.

이박사는 기술과 문화부문에서 울산공대와 영국의 여러 칼레지및 대학사이에 유대를 강화하는데 힘을쏟아왔다.

(서울 24일=연합) 노동부는 지금까지 한국법상 남성에만 국한시켜온 30개취업분야중 24개를 폐지, 7월1일부터 용접, 목공, 크레인운전등에 여성도 종사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약 12,000명의여성들이 이와같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분야에서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부나 6천 볼트 이상의 고압전기를 만지거나 무거운 물건올리기등의 직업은 여전히 여성들에금지된다.

앤·머리 특집쇼 방영
28일(일)밤8시 CBC−TV

◇캐나다의 정상급 가수 앤·머리

캐나다 팝송가수로 가장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사람의 하나인 앤·머리 특별쇼가 28일(일) 밤8시 CBC−TV(채널5)에서 방영된다.

3개의 그래미상, 16개 주노상을 수상한 앤·머리는 팝 음악계의 명실공한 세계적 거성으로 그녀의레코드는 미국, 캐나다는 물론 한국, 홍콩, 일본, 호주등에서도 백만장 이상 팔렸고 그녀가 부른 Danny's Song, Daydream Believer, You Needed Me등은 팝송계의 고전처럼 여겨지고있다.

앤·머리의 인기는 한국에서도 수년전부터 계속돼 서울의 한 흥행업자는 그녀가 내한 4회 공연할경우 25만달러를 내겠다고 제의, 그녀를 놀라게 했었다는 얘기가 캐나다 연예가의 화제가 되었다.

노바·스코시아주 스프링힐에서 태어나 대학 에서 체육교육학을 전공한 앤·머리는 79년 그래미상에서 올리비아·뉴톤·존, 칼리·사이먼, 도나·서머, 바바라·스트라이샌드등 쟁쟁한 정상급 여가수들과 겨룬 끝에 최우수 여자 팝송 가수상을 차지했었다

앤·머리는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는 가수로도손꼽힌다. 가정생활을 침해할 우려있는 시간·장소에서의 공연은 절대 응하지 않고 매년 7월이면 일체의 출연을 금하고 가족들과 즐긴다.

1남1녀의 어머니. 2년전에는 죽자고 그녀를 쫓아다니는 한 열렬한 팬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 결국 법정에 까지 비화, 판사가 더이상 앤·머리에 접근치 못하도록 판결한 일도있었다.

◇영국의 팝·싱거 수지·쿼트로(31)양이 81년 미스·엉덩이로 뽑혔다. 영국 청바지제조업자들이 뽑은 수지양은 부루·진을 입었을때 예쁘게 생긴 통통한 엉덩이 모습이 그녀의 앞모습보다 더 보기 좋다는 평을 받았다. "누구든지 내 모습중에서는 엉덩이가 제일 이쁘다고말해요"라고 쿼트로양은 말했다.

은하보석상, 확장이전
시세이도 화장품도 판매

블루어 한인거리에서 보석상으로 착실한 성장을보인 은하보석상(대표 김용섭)이 지난1월 확장이전에 이어 일본산 시세이도 화장품 대리점 자격도따 화장품 악세사리등 판매분야를 계속 늘이고있다.

보석판매및 세공업을 위주로 고급시계(로렉스) 판매대리점 역할도 했던 은하보석상 김용섭씨는 22일 "화장품 업계에서는 딜러쉽을 따내기가 어렵다는시세이도 판매권을 얻은것은 정말로 예상밖이다. 특히한국여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기대가크다"고 말했다.

은하보석상은 653Bloor St. W.에서 길건너편(한국관 동쪽)인 620A Bloor St W.로 확장 이전하면서 부터 보석, 시계류 이외에프랑스제 랭콤, 미국제 에스테·라우더등 각종제품을갖춘 본격 화장품 판매상 으로 또한 고급 가죽, 악세사리, 지갑, 핸드백, 펜, 라이터등도 구비 악세사리 전문점도 겸하고있다.

시세이도 화장품의 판매는 3월초 시작되며, 회사에서 직접 미용강습을받은부인 전성해씨의 미용상담도 겸한다.

김씨는 72년이민, 스파다이나의 차이나코트에서 약 2년반, 블루어로 옮긴지 약 2년2개월만에 다시 확장이전 한것이다.

김씨는 81년에도 연방정부의 보석세공및 제조면허도 획득했었다.

다이아나妃 모습훔친 두사진사 女王에사과

(이류데라, 바하마스−AP) 찰스 황태자와 다이아나 황태자비가 휴가를 즐기고 있는 바하마의 섬까지 따라와서 덤불밑에 숨어 비키니 수영복차림의 임신한 황태자비를 사진찍은 사진사들이 영여왕 엘리자베드 2세의 노염을 사고 섬에서 내쫓겨 났다.

<시>

EPHPHETA

박 옥 선

단명(短命)한 목숨들이
서둘러
시간을 걷어내고 있는 사연들,
그 앞에
저렇게 밝아오는 "마르코 7장의" 성구(聖句).

큰 숨, 귀먹은 반벙어리의
아, 어쩜 그리도 밝던
목청이 탁 트인
참 평안의 "Ephpheta !"
무릎 꿇던 주문(呪文)의 갈릴레아가
여기
바람같은 발자국으로 걸어온다.

울타리의 개나리 혼자
가지마다 깨어서
말갛게 밤을 지키던 흙,
거기에
손을 묻어보고 싶어

신열이 온통 몸을 태우는
마디 마디
이방인의 혼(魂) 앞에
초대교회 영세식의 온 정기(精氣)의 제상(祭床)이

오늘에도
생명의 부활 "Ephpheta!"로 새겨지는
은혜.

일력(日曆)이 헤아리니
그저 그런 줄
언제 시작이고 끝맺음인지도 모르는
고뇌가
생명을 달래보는
목이 타는
2000년의 일몰(日沒).

아직은
이별을 멀리 둔
그렇게만 믿고 싶은 오늘,
생애의 길을 틔우는
전례(典礼)에 묻어온 숨결
사방을 열어주는
"Ephpheta!"

안으로 환해지는 평안은
더욱
눈부신 어휘(語彙)로 되살아오는
손길.

<캐나다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135)

팔리·모왓 원작·원재훈 옮김

무지개는 반대편으로 넘어가 호수의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훌륭한 곡선을 그렸다. 그것은 단지 무지개에 불과했지만 오호토는 그것을 길조라고 다짐했다. 우리가다시 이름이 없는 그 호수로 카누를 저어갈때 오호토는 뱃머리에 올라앉아 마치개가 앞에 무엇이 있는가 찾아내려는 것처럼 냄 새를 맡았다.

우리는 반대편에 보이는 계곡에 갑자기 끊긴곳까지 연변을 따라 올라왔다. 그곳에서 바라보니 우리들이 마치 세상의 끝에 와있는 것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주위에는 바위 벼랑이나 산도 없었다. 우리는 지구의 표면에난 구멍을통해 무한한 우주속을 바라보는것 같았다.

주위의 경치가 다정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다. 우리는 배에서내려 옴푹 꺼진곳의 서쪽으로 걸어가서 살펴 보았다. 거기서 이곳이 어째서 세상의 끝처럼 보였는지 그 이유를 발견했다.

우리가 밑으로 지나온산은 호수와 서쪽으로난 보다더큰 호수를 갈라놓는제방구실을 하고 있었다. 산맥은 북쪽에서 이어내려오면서 길게 좁은 육지로지형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가 서있던 장소에서 보면 육지는 반마일정도의 넓이로 좁혀져 가장좁은 곳에서 산이 한동안 끊겼다. 우리들이 있는 남쪽으로산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며 훨씬 남쪽으로 육지가 뻗혀나가기전 꽤 높은 산마루로 점차 변해가고 있었었다.

협곡의 가장 좁은곳을통과하면서 우리는 이들 두개의 호수를 연결하는곳이 없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세상의 끝에 온것처럼 무시무시하게 생각되었던것은 새로발견된 더큰 호수가 우리가 지나온 호수밑으로 약30피트나 낮게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때문이었다.

새로발견된 호수는 다른 호수에서 여지껏 보지못한 청명하고 짙은 하늘빛을가진 놀라운 색깔을 갖고 있었다.

이색깔을 기억하고 있던 오호토는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이것이 톨레말리쾌트나라고 불리는 호수요. 저 호수를 따라가면 내륙에서는 제일큰 톨레말리콰 호수까지 갈수 있읍니다. 거기서 북쪽에있는 얼음이 어는바다까지 연결이 되지요."

오호토 그 자신은 한번도 본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옳았다. 실제로 이것이 톨레말리쾌트나 호수였고 우리가 서있던 좁은제방은 바렌의 중앙 물줄기를 둘로나누고 있었다.

이누이트쿠−카잔 그리고 드바운트 강들은 각각 길이가 330마일이며 바렌평원을 서로다른길로 흐르다가 마지막 바닷물과 연결되는 카미니곽 호수 (우리는 베어레이크라고부름)에서 서로 만났다.

그러므로 앙쿠니 레이크의 동쪽연안에서부터 톨레말리쾌트나 레이크의 서쪽연안까지 동서쪽으로 거의 100마일 사이로 사슴떼가 이곳을 통과할때는 겨우 4분의1마일 폭을 통과하게 되는것이다.

제방을걸어 카누로 돌아오면서 우리들은 너무많은 사슴들이 지나다녀 땅에는 바위이끼나 어떤잡초도 구경할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지난 몇백년동안 수백만의 사슴들이 봄 가을 두번씩 이작은 협곡을 남북으로이동해 갔음에 틀림없다. 사슴이 다니는 길중에서 가장큰 사슴의길이 여기에있었다.

또한 이협곡을 따라서대각선을 그으며 수없는 비석들이 서있는데 군인들이 행렬하는것처럼 반듯하게 줄을 맞추고 있었다. 비석들은 카누하나 사이만큼떨어져 있었고, 마치 이 협곡은 북쪽으로 부터의 침략을 방어할려는듯이 계속선두에 서있었다. 각 비석은 대략 높이가 3피트 정도였고 모두 머리 는 갈색의 이끼로 덮여있었다.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ER TRAINING CENTRE

운전을 배우실 분들!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으니 택해
보세요.

1. 완전코스($199.00)
- 25시간의 실내강의
- 10시간의 운전교습(운전시험도 포함)
- 차보험 액을 최대로 할인할수 있는 보증서 발급
- 인캄텍스 공제

※저녁과 토요일 그리고 학교방학동안도 함.

2. 짧은(MINI)코스($69.00)
- 3번의 운전레슨
- 운전시험때 차대여해줌

3. 씽글(SINGLE) 레슨($15.00)
- 한번의 레슨

※운전시험때 차대여는 $15.00

All Courses Approved & Registered by the Ontario Safety League

2489 BLOOR ST. W. STE. 210
(JANE지하철 근처임)
766−4441, 766−4644
월~금 : 9시~6시30분, 토 : 9시~1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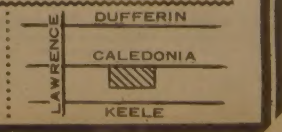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도미니온·스몰웨어에서 세일즈·슈퍼바이저로 일하게 되었읍니다. 언제든지 찾아 주시면(전화) 감사하겠읍니다.
김 형 철 배

Feb.22 - Mar.5 1982

Neilson choco chuhks	5 lb x15¢	9.99
Fleers soft dub bub deal pack	4x20x30¢+2.40 free	13.65
Cracher jack	36x40¢	9.99
Rowntree& Cadbury& Lowney's Reg. choco bar	36x40¢	9.99
Cadbury thick bar	36x55¢	13.75
Rowntree& Cadbury& Neilsons family size bar	24x99¢	15.09
Hershey almond choco bar Peanut bitter cup	36x40¢	9.29
Y & S Twizslers	70x 5¢	1.85
Y & S Twizzlers	60x10¢	2.89
Life Savers candy	24x30¢	4.55
Breath savers	12x35¢	2.55
breath savers	18x35¢	3.95
Hi - C pops	24x10oz	5.99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Young−Sook's Jewellery

보석상 개업특별봉사

오는3월1일부터 다운타운에 보석상을 개업합니다. 교민 여러분께 최저 가격으로 특별봉사코자 하오니 꼭 한번 들려 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각종보석, 다이야몬드, 금·은 취급
*품질보장
*뉴 디자인으로 마음에 맞게 해드림.
*옛날보석 개조 또는 교환 매매.
*보증서 발행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Fir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125 Yonge St.
(영×킨)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752-7771

물의가 일고 있는 밀크 리베이트문제

모든 그로서리 스토어의 주종품목인 밀크판매 리베이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알려진바에 의하면 씨얼테스트(Sealtest)밀크와일부 수퍼마켓 스토어들이밀크 리베이트의 조정을 협의 진행중이라는 풍문을듣고 동요되어 일부 그로서리 상점들이 소그룹을 구성하여 독자적 딜(deal)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번지고있다.

이런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협회원 들도스스로 그룹을 만들어 보다 유리한 리베이트 확보를 표명하며 뜻을 규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보를 입수한협회고위관계자는 밀크 회사와의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여 유리한 리베이트를계약갱신을통해 확보하려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고밝히고 있다.

같은수준의 리베이트라면 협회를 통하여 받을때 더욱 유리하며, 힘을모아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어 보다 강력한 써비스를 받아낼수있는 장점을 지니게된다. 만약 그러한 움직임이 확대되면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중대한영향을 끼치게되어 불이익을 초래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절대로 동요하지말고 현재 진행되고있는딜의 확정을 기다려 주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안에 완결하여 발표하게될 것이라고 강력히 표명했다.

협회원에 스페샬 제공

스카이웨이비지네스머쉰

(Skyway Business Machine)

회원스토어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캣쉬 레지스터용 페이퍼 로울(Paper Roll)을 스페샬 가격(30% discount)으로 제공한다고 스카이웨이머쉰 회사가 알려왔다.

이는 실협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기 원하는 회사측의 희망이라고 사장 김인환씨의 전언에서 밝혀졌다.

아울러 어떤 종류의 전자식 캣쉬레지스터(Electronic Cash Register)든지 20% 할인하여 제공할 것이며, 전종류의 전자식캣쉬레지스터의 기계고장도 수리가 가능하므로 24시간중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다.

Special offer for K. B. A. Members

Each case=100 roll.

—Size—	reg. price	Special 30% off
27㎜ × 79.5㎜	$72.60	$50.82
37.5㎜ × 79.5㎜	$81.40	$56.98
40㎜ × 76㎜	$83.10	$58.98
NCR Style (수동식)		
53㎜ × 12㎜	$154.00	$107.80
33.5㎜ × 50.5㎜	$50.60	$35.42

※어떤 수동식 종류의 캣쉬레지스터 페이퍼 로울도구비하고 있으니 기계의 모델넘버만 전화로 알려 주시면 그 가격을 알려드리겠읍니다.

Skyway Business Machine 김 인 환 ☎675-1295 675-1296

무신용장 수출늘어

불황타개에 안간힘

(서울 24일=연합) 최근 한국의 수출업계에서는 신용장(L/C)없는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24일 밝혀졌다.

관세청이 조사한 바에따르면 LC없는 수출은 작년 11월까지 미화 22억달러에 이르러 한해전 같은기간에 비해 44%가 늘었다.

업계 소식통들은 LC없는 수출이 는 이유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자 수입자에 보다 호의적인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

이것은 수출업계가 최근의 세계경제불황과 관련,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것을 보여준다.

조남유 목사 대한교회 부임

◇조남유 목사

토론토 서부지역에 위치한 대한교회(3819 Bloor St. W. × Kipling)는 제4대 담임으로 조남유 목사를 청빙했다.

그동안 박사학위 연구차 토론토에 머물며 동교회를 인도해온 강근환 목사가 3월말께 귀국, 서울 신학대학 교수로 복귀하므로 그 후임으로 결정된 것이다.

지난 74년 이민 와서 교회담임을 하지 않고 임마누엘 연합교회 설립때부터 평신도로 소속되어 일해온 조목사는 지난 10개월간한인실업인협회 사무장직 을 맡아왔다.

지난 60년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 한국 감리교회 정회원 목사로 이민 직전까지 13년간 목회를 한 경력의 조목사에 대한 대한교회 신자들의 기대가크다.

4월 첫주일(4일) 취임예배를 시작으로, 교회일만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조목사는 말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LA주영문씨 여동생 찾아

◇가출한 주복순양

(LA지사)한국일보 LA지사 근무 주영문씨가 여동생 복순양(24세)을 찾고 있다.

주복순양은 지난 76년11월 어머니와 함께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이민, 77년 가을 가출한 후 오늘까지 소식이 끊기고 있다.

주양의 어머니는 현재병환으로 위독상태여서 가족들은 복순양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조양의 거처나 소식을아는 사람은 아래 주소로 연락을 바라고 있다.

*주영문 :
1017 Dewey #5 LA.
Ca 90006 U. S. A. 전화 :
(213) 388-6784.

교 민 동 정

◆민영숙(보석상 경영) = 3월1일부터 토론토 125 Yonge St×Queen St. 에 보석상을 개업한다.

◆김병선(한인천주교 대건회장) =지난 20일밤 교우「친교의 밤」을 맡아 300명 가톨릭신자들을 위한 봉사주역으로 뛰었다. "밤중까지 모두들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셔서 흐뭇했다"고…

가장 친한사람

윌슨씨가 출장에서 예정보다 2일 쯤 앞당겨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는 잠옷바람에 흐트러진 자세로 베드에 누워있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그가 다그쳐 캐묻자 아내는 되양되양한 말투로 대답했다.

『당신은 밖에서 노상 즐기고 있잖아요? 나도 때로는 기분을 풀 필

—얘기의 샘—

요가 있단말예요』

『누가 그따위 이유를 듣겠댔어? 대체 상대는 누구야?』

무서운 기세로 고함을 치자 아내가 말했다.

『만약에 당신과 가장 친한 사람이라면 어쩔래요?』

그러자 윌슨씨는 멍청히 입을 딱 벌리고 서있다가 머뭇머뭇하는말이

『아니 그럼 당신은… 레, 레즈비언 취미까지 있단 말인가?!』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집행부 동향◇

2월22일
①Sealtest, Rosen dairy 등Milk회사와 새로운 스케일(Scale)에 의한 리베이트에관한 협의를 진행중인데 2월중으로 완결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월19일
②Multimedia와의 포켓·북 딜협상이 완료됨(자세한 내용은 광고참조).
③협회고문및 지정변호사 선정을 위한 회의(회원들 로부터 비지니스·훼밀리, 크리미널, 이민문제에 대한 전화문의가 쇄도하여 고문변호사와 지정변호사를 추천 공인하여 저렴하고 공정한 가격과 신속한 처리를 받도록 주선하려는 것임.)
④Frito Lay 회사와 더욱 유리한 디스카운트 협상을 위한 미팅.
⑤회원상점 주소록 발간에 따른 광고주 선정작업을위한 모임(주소록 편집위원들).

◇이사회 동향◇

2/22일(월)이사장 김태진씨는 제2차 정기이사회 에서 위임한 각분과위원회 소속 배정작업을 끝내고, 발표하면서 매우 만족해했다.

이사회의 조직과 기구는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이사회 각분과 위원회 명단◇

이사장 : 김태진
부이사장 : 배경라
총무이사 : 이춘수
서기이사 : 이학현

기획조사분과위원회 : 전윤식, 김용규·송재규
사업 제1분과위원회 : 박경태, 고정배·최상수
사업 제2분과위원회 : 우희두 함덕상·조한권
사업 제3분과위원회 : 한천석, 강창흡·이 휘
사업 제4분과위원회 : 이정수, 이상철·유영갑(R)
섭외분과위원회 : 박광철, 이병권·김사만
친교봉사분과위원회 : 김명경, 김병선·문영환
홍보분과위원회 : 서준경, 조정대·박찬도
재정분과위원회 : 구연원, 최재오·원종필
회칙개정및 내규제정분과위원회 : 장추국, 임철원·홍사렴·장가진·서동준
협동조합추진분과위원회 : 이춘수, 박경태·우희두·이정수 이학현·장재춘·전기석
선거관리위원회 : 이국영, 유영갑·박경태·박찬도
감사위원회 : 서동준, 고정배
(명단 첫머리에 있는 분들이 각 위원회 위원장임.)

멀티메디아 포켓 북
(MULTIMEDIA DISTRIBUTORS)
127 TELSON ROAD MARKHAM
ONTARIO, L3R 1E7
TEL. (416)495-9499

실협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K.B.A.)와 협약을 맺고 포켓북을 공급 써비스하게 되었읍니다. 아래와 같은 계약 내용을 따라 성심껏 봉사하겠읍니다. 자세한것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세일즈 맨을 보내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협 약 내 용
Net Billing(Total Invoic billing)
$0.00-$800. 리베이트 없음
$800.00-$1 500. 2.5% 리베이트
$1,500~$2.000 5% 리베이트
$2.000이상 7% 리베이트
Rebate는 매 분기말 15일이후 지급함
1982년2월19일 8
사장 Joe C. Dwek

감 사 말 씀

금번 하나님의 부르심을받은 고 유득이 집사님의 장례식이 공사다망 하신 가운데 참석하시어 고인의 이별과 저희 유가족들을 위로해주신 반석교회, 중앙교회 교인들및 타교인, 친지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서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82년2월24일

유가족〉 미망인 김소남
아들 유종철
며느리 박봉애

공 고

3.1절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저 하오니 교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1982년3월6일(토)오후1시

장소 : 한인회관(20 Mobile Dr.)

※행사후 다과및 영화상영이 있겠읍니다.

토론토 한인회장
박 인 순

BABS
Business Accounting & Book keeping Services
*Business & Individual Tax Returns
*Year-Round Tax Accounting and Bookkeeping Services
※Available at H & R BLOCK Tax Office
(Rexdale Plaza 의 Eaton's내
Wen, & Fri. Eve. Only 6 : 00~9 : 30
Location :East of Islington and North of401)
DAVID H. KIM (김 희 체)
ACCOUNTANT-LIFTOW LTD.
C.G.A. 4TH YR STUDENT MEMBER
(Co.) 677-3270 EXT. 37
(RES.)742-9514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民營 농수산물集配센터 설치

上半期중 서울2개 86年까지 全國 11개소

長期계약 需給안정化

消費店등에 直販…流通단축

物品선정·포장·냉장수송 衛生的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民資를 유치하여 대규모농수산물 集配센터를 세워 이곳에서 농민과장기계약, 각종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팔도록 할 계획이다. 22일 농수산부에의하면 농수산물의 유통단계를 단축, 안정적인 물량수급, 위생적인 포장처리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수있는 대규모 농수산물 集配센터를 올상반기중 서울에 2개소 세우는등 5차5개년계획기간중(86년) 전국에 11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이계획에 따라 서울의경우 江南北지역에 각 1개소씩을 선정, 농수산물集配센터를 세울것으로 되어있다. 이 集配센터는 민간유통전문업체가 냉·저온 저장시설과 냉·저온 수송및 포장시설을 갖춘다음 産地생산자와의 장기재배계약, 공동출하계약 또는 單純가공계약을통해 물량을 직접 공급 받아 엄밀한 물품선정, 위생적인 포장으로처리해 대량실수요자, 슈퍼체인, 주택가, 소매점에 직접配送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의 現代化를 유도한다는것.

농수산부는 우선 올해안에 시설자금 60억원을 지원, 서울에 2개소(江南지역 漢陽슈퍼체인·江北지역은 적정업체 선정중)를 시설하는 한편 오는 86년까지 전국에 9개소를 더 설치키로했다.

대상자격은 유통전문 법인체로서 부지 2천평이상에 저장·가공·포장·배송을 위한 2천5백평이상의 건물을 소유하거나 점포계약을완결, 냉·저장 시설은 물론 대량포장시설과 냉장 수송차량등을 확보해야한다.

농수산부는 농수산물 집배센터가 수집분산기능의 효율화로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유통비용을 절감시킬수 있고 일관시스팀에 의한 물량처리 공급으로 농수산물의 거래단위의 통일화및 규격화를 촉진시킬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또 위생적인 신선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있고 産地직거래로 농가收取가격을 높이고 소비자구입가격을 안정시키는 이외에 계약재배등으로 소비전망의 불안정성을 보완, 안정적인 계획출하를 도울수 있다는것.

그런데 현재의 농수산물유통단계는 생산자─수집─반출─도매시장─중매인─도매인─소매상─소비자등 5~7단계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쳐야하기때문에 농수산물의 鮮度유지가 어렵고 가격도 2~3배까지 비싸지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南北韓관계등 國政諮問 회의 청취

國政諮問회의는 22일 상오 서울三淸洞 회의실에서 제10차회의를열고 劉彰順 국무총리로부터 금년도 주요國政의 추진방향, 孫在植 통일원장관으로부터 南北韓관계에 관해 각각 보고를 받은뒤 의견교환을 가졌다.

崔圭夏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劉총리와 金俊成 부총리겸기획원장관 孫통일원장관 許和平 청와대政務제1、金泰鎬政務제2수석비서관 趙英吉 총리비서실장 孫守益 行調실장등이 참석했다.

農資金利 1%내려

내달부터 부담 年45億경감

정부와 民正黨은 오는3월1일부터 營農자금의 貸出金利를 현행 14%에서 13%로 1%인하키로 합의했다.

羅碩昊 民正黨정책위의장은 22일 이같이 합의내용을 밝히고 1%引下조치로 年間농민들의 金利부담 經減혜택은 4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현행 市中은행 일반대출금리를 고려, 앞으로 영농자금대출금리도 12%線까지 낮추도록 건의할계획』이라고 덧붙였다.

短資·保險회사 貸出金利도 1%引下

短資회사와 保險회사대출금리가 22일부터 1%포인트씩 인하된다. 또會社債는 발행금리20%에 2%까지 할인해서 판매할수있던 割引販賣制가 폐지돼 20%의 발행조건으로만 발행하게된다.

이번 제2금융권 금리인하조치로 短資會社 金利는90日字를 기준으로할때 貸出金利는 우량업체분이 年18·5%에서 17·5%로 1%, 一般企業體分이 19·0%에서 18·0%로 1%포인트씩이 떨어졌고 預受金利는 16·0%에서 15·0%로 역시 1%포인트가 떨어졌다. 현재 3개월짜리 定期預金金利는 14·4%이다.

한편 保險社의 貸出金利는 約款貸出의경우 기업체분이 19·0%에서 18·0%, 일반개인분이 18·0%에서 17·0%로 1%포인트가 각각 떨어졌다.

그러나 短資社의 預受金利중 短資社의 自己發行어음금리(年14·5%)와 보험회사 대출금리중 주택보험금리(年16·0%)는 변동이없다.

羅雄培 재무부장관은 이번 제2금융권금리인하는 그간 최고10%에 달했던 제1、2금융권간의 금리격차를 좁히기위한것이며 이번 조치로 금리 격차는 종전 평균 8%에서 2%로 좁혀져 기업의 금리부담이 연간 5백억원이나 덜게 됐다고 밝혔다.

羅장관은 이번 조치로 제1、제2금융권간의 금리격차조정은 완결되며 앞으로 産業金融債券이나 원화表示 外國換債券등 國公債와 회사채 수익률도 20%이하로 조정해 나가기로했다고 밝히고 CP(신종기업어음)나 일반私債金利도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될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羅장관은 또 전체적인 금리수준은 앞으로도 국제금리나 물가동향에 따라 신축성있게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駐하와이 美軍 先發74명 着韓

팀스피리트大空輸

팀스피리트 82를 위한 미공수사령부의 한반도 대공수작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미제25사단(하와이주둔) 소속 선발대 74명이 21일상오7시 하와이 히컴공군기지로부터 C5A 수송기편으로 한국에 도착, 2대의 버스편으로 春川근교 ○○기지에 배치됐다.

全대통령親書 전달 統一方案설명

盧外務、미테랑訪問…仲裁役割 요청

세이송外相과도會談…友好·協力증진再確認

【파리22日=金聖佑특파원】 프랑스를 공식 방문중인 盧信永외무장관은 22일 상오11시(한국시간 22일 하오7시·이하 현지시간) 엘리제宮으로 프랑스와·미테랑佛 대통령을 예방, 韓·佛 양국간의 기존 우호협력을 재다짐하는 한편 全斗煥 대통령의 親書를 전달하고 한반도주변정세와 특히 지난1월22일 全대통령이 제의한 민주통일방안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했다.

盧장관은 이자리에서 한반도의 平和정착과 南北韓간의 對話再開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프랑스정부의 중개역할을 요청한것으로 알려졌다.

盧장관은이어 하오7시세이송佛外相과 韓·佛外相회담을갖고 두나라간의 공동관심사와 쌍무적인 협력증진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外相회담에서는 특히 양국간의 기존우호협력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頂上회담의 조기개최문제, 통상및 경제협력, 문화교류의 확대등 두나라간의 외교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것으로 알려졌다.

盧장관의 訪佛은 韓·佛修交이후 우리나라 외무장관으로는 첫공식방문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있는데 그는 印度의 뉴델리에서 亞·中東지역공관장회의를주재한후 21일하오7시20분 파리에 도착했다.

盧장관은 양국外相회담에 앞서 베레고비와佛 대통령비서실장, 조베르對外무역상, 스위도르철도산업회장, 마슈프랑스上院의원등과 일련의 접촉을 가졌으며 이날하오8시에 세이송外相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盧장관은 23일상오 유틀퍼 원자력발전소를시찰한후하오 8시 나이지리아로출발한다.

美亞洲協會長 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22일하오 청와대에서 美아시아협회의 로버트·옥스납회장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金東輝외무차관과 宋仁相韓美협회회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이날상오 누아·아드란·빈·야히야 우딘 駐韓말레이지아 대사의 離任예방을 받았다.【사진】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도 같은시간에 아드란대사부인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全대통령 訪印초청

韓印外相、協力확대 合意

【뉴델리=聯】印度정부는 全斗煥대통령의 印度방문을 공식으로 초청했다고 印度외무성대변인이 20일저녁 발표했다.

全대통령의 印度방문초청은 지난19일 盧信永외무장관이 인디라·간디수상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져 20일 제2차 韓·印외상회담에서 재확인됐다.

全대통령의 印度방문시기는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키로했다.

또 라오印度외상은 全대통령의 印度방문에앞서 盧장관 초청으로 오는7、8월께 한국을 공식 방문, 양국간의 우호협력증진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키로 양국이 합의했다.

그런데 印度정부가 한국의 국가원수를 초청한것은 지난73년 양국이 大使급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韓·印양국은 이날 2차례에 걸친 外相회담을 통해 양국간의 합작투자를 통한 제3국공동진출·문화교류등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해나가기로 하고 오는3월 뉴델리에서 열리는 제4차 韓·印度경제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키로 합의했다.

全대통령、美 金融誌 회견

"對韓投資 상환보장

經濟에壓力배제…對中共관계 바람직"

【뉴욕=聯】全斗煥 대통령은 한국의 外債상환능력에관해 확고한 자신을 표명하면서 국제금융인들에게 『본인은 大韓民國에 투자된 外債는 결코 뒤탈이 없을것으로 확신,보장한다』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미국의 권위있는 국제금융지 「인스티튜셔널·인베스터」誌의 「길버트·E·카플란」편집국장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때문에 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제활동을 자유화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스티튜셔널·인베스터誌는 22일 발행된 2월호에 카플란편집국장이 지난연말 청와대에서 全대통령과가진 단독회견내용을 「全斗煥대통령이 보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사진들과 함께 커버스토리로 크게 실었다.

全대통령은 또 『경제정책이 정치적인 압력과 같은 외부요인에의해 좌지우지될수 없다는점을 확실히 해둔다』면서 『경제는 경제적인 관점과 판단에따라 운영돼야 한다는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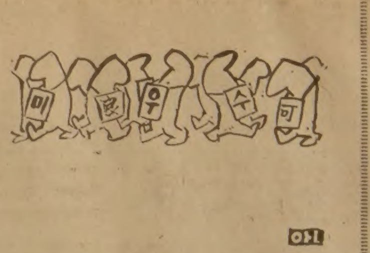
全대통령은 5년내에 중공과의 외교관계개설이 가능할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한국과 중공간의 관계개설은 東北亞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 매우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고지적했다.

북괴의군비증강과무력남침책략을 거듭경고한 全대통령은 한국은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한국에 적대적이 아닌 모든 국가와 통상및 외교관계를 개설하겠다는 정책을거듭천명했다.

學士들의 社會첫발

◇才媛들이 쏟아져나온다. 저많은女學士들은 어떤꿈을안고門을나서는것일까. 象牙塔에서 연마한 지식과인격을 재산으로 교문을 나서는 저들에게 우리사회는 어느정도의수용태세를갖추고있는지。(22일梨花女大에서)

社會漫評



하나부터 열까지
「評價! 評價…」

地平線

물가보다 앞질러 가고있는게 무기값이다。50년대에서 지난80년을 비교하자면 군함은 3배나 뛰었다。탱크는 2배、지상공격 전투기는 4배、對潛무기는 자그마치 8배나 뛰었다。그러나 이것도 비슷한 무기들을 비교했을 때의 숫자다。 예를들어 군함은 데어링급의 구축함、탱크는 센추리언과 취프튼、전투기는 헌터와 자구아같은 식이다。값차원이 다른 무기가 되면 값도 껑충 뛴다。▼그런만큼 세계의 군사비는 늘어만가고있다。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80년엔 세계통틀어 5천억달러(3백56조원)가 군사비로 나갔다。대체로 국민총생산의 6%선이다。그러나 개발도상국은 평균16%나된다。이중에서 약3분의1이 총이나 대포에서 비행기와 미사일에 이르기 까지의 장비를 사들이는데 쓰이고 있을것이라는 짐작이다。▼그러니까 세계에는 적어도 1천7백억달러(1백31조원)가 넘는 무기시장이 있다는 말이 된다。일부는 고도의 핵무기에 쓰이겠지만 대부분은 재래식무기에 쓰인다고할 수있다。어쩌면 2천억달러(1백40조원) 가까운。이노다지판을 놓고 세계각국은 열띤 경쟁을 하고 있다。잘 알려진것처럼 세계무기시장을 잡고있는 것은 미국과 소련、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이다。▼한해 1백60억달러(11조4천억원·80년)의 무기를 수출하는 미국은 공산권을 뺀 세계무기시장의 45%를 차지하고있다。소련이 공산권까지 합치면 미국과 맞먹지만 비공산권에선24%、프랑스 10%、영국 5%로 돼있다。경제에서 뒤지고 있는 이탈리아가 무기수출에서는 서독을 앞질러 세계 5위로3%를 차지하고 있다。▼70년대 세계 무기거래의 75%는 개발도상국들이 사들인 것이었다고 유엔은 보고하였다。이중의 3분의1은 중동의 기름부자 5개국 몫이다。그러나 어쨌든 제3세계의 군비확대바람을 타고 무기산업도 판도가 바뀌고있다。강대국의 눈치를 살필게 아니라 웬만한 무기는 스스로 만들어 쓰자는 나라들이 늘어나고있는 것이다。그앞장에 서있는 나라가 브라질이다。▼장갑차와 제트연습기에 이르기까지 브라질은 작년에 15억달러(1조6백80억원)의 무기를 수출했다。이스라엘도 13억달러로 바짝 뒤좇고있다。『무기수출은 허약한 경제를 크게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한 관계자는 말한다。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무기산업은 지금 불경기를 모르는 수출산업이다。이 노다지판에 臺灣도 서서히 뛰어들 가능성이 보이고있다。전투기개발계획발표가 갖는 의미를 우리도 여러모로 생각해야 될것같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구독신청은
(416)
533 · 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매혹의 저음가수
배 성 : 특별출연
기 간 : 2월18일부터
매주 목, 금, 토, 일
오후8시30분부터
히트곡 : 사나이부르스
망 향
기적소리만
향 수
무정한 여인등 20여곡

거 구 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파티 예약환영
영업시간 :
평일 오전11시~새벽2시
일요일 오전11시~새벽1시
밴 드 :
목, 금, 토, 일 저녁8시30분~2시까지
권순근과 그의 악단
5 BETHRIDGE RD.
742— 1618

中東戰에서 워터게이트까지

키신저 前美국무장관은 말한다

자난73년 제4차 중동전쟁 발발직후 소련은 美蘇합동 평화유지군을 중동에 파견하자는 제의를 해왔으나 당시 美국무장관 헨리·키신저는 닉슨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독단으로 이를 묵살했다고 AP、UPI통신은 22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키신저박사가 자신의 회고록 3부작중 곧 발간될 제2부「격동의 시대」에서 당시 소련제의는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중동에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 회고록에서 그는 그때 미국정책의 목표는 中東전쟁을 중지시키는 일과 戰後 정치타결 문제를 別個로 삼는 한편 휴전후 협상과정에서 소련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키신저박사는 또 소련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가 보낸「최후통첩」을 도브리닌 駐美 소련대사로부터 받았으나 당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자신의 정치적 파산을 실토할만큼 경황이 없는 처지여서 키신저 자기가 닉슨명의로 답신을 작성, 소련에 거부 통고를 하였으며 소련은 키신저의 答信을 받은 바로 다음날 당초 내놓았던 협박에서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키신저 前美국무장관의 회고록「격동의 時代」는 22일부터 요미우리신문에도 재록되고있다. 그 내용은 회고록 제1부「백악관시절」에 이어 1973년 1월 닉슨대통령의 第2期취임에서부터 74년8월 워터게이트로 사임할때까지 격변의 시기를 엮었다. 본사는 제휴사인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독점연재하는 내용의 일부를 전재한다. 【東京22日=宋孝彬특파원】

기이한 운명으로 나는 리처드·닉슨대통령의 제2기 (금세기의 전례없는 격동시대) 에미국외교정책 운영의 일상업무를 맡았다. 닉슨대통령은 미국선거사상 두번째의 대승리를 거뒀으며 원기왕성한 그는스스로의 행동에 불을 붙였고 그불을 스스로 끄지못했던 격변속에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더우기 닉슨대통령의 권한이 붕괴되고있는 가운데 中東이 불을뿜었고 동맹국과는 마찰을 일으켰으며 에너지위기가 일어났고 베트남평화는 어긋났으며 국내에서는美·蘇관계를 에워싸고 격론을 더해갔다.

워터게이트사건은 거의 모든면에서 외교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그 생생한 교훈은 창조적인 외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대통령의 존재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게해주었다.

土曜日 새벽잠깬 急報

나는 73년9월 국무장관에취임, 국가안보담당보좌관으로부터 훨씬 광범위한 문제와 책임을지게됐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교정책을 국내의 파국으로부터 될수있는한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1973년10월6일 토요일 상오6시15분 나는 연차 유엔총회의 거지인 뉴욕市월도프·아스토리아·타워즈의 방에서 푹 잠들어있었다. 돌연 나의 침실문에 뛰어든 사나이는 정력적인 中近東·南아시아담당차관보 조셉·시스코였다. 나는 시스코의 귀에 거슬리는 외마디소리로 잠을 깼다. 이스라엘對 아랍의 이집트, 시리아가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있다고 몬자그대로 외마디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겨우 잠에서 깨어날수 있었다. 시스코를 이렇게 흥분케 한것은 케네드·키팅駐이스라엘美대사(前상원의원)로부터 긴급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시간전 메이어이스라엘수상이 키팅대사를 수상집무실로 불렀다. 이스라엘지도자가 이날 일을 한다는것자체가 이례적인것이었다. 그날은 유태인으로서는 1년중 가장 신성한 祭日인 욤·키푸르즉「속죄의 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메이어여사의 놀랄만한 전언은사실 이스라엘의 운명적인 사건이 시작된것을 뜻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말썽에 말려들어간것 같다』고 메이어여사는 키팅에게말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도 미국도 단순한 군사훈련으로 추측하고 있던 이집트와 시리아 양군의 동향이 돌연 불온한 전개를 시작했기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소련과 아랍제국에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시리아를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알려줄 수 없느냐는것이 메이어여사의 요청이었다.

시스코가 나를 두들겨깨울당시는 중동에 겨우 90分의 화평밖에 남아있지 않을 때였다.

교묘하게도 이집트와 시리아는그 전쟁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단계에서 이스라엘은 공격이 있다하더라도 실제의 행동시간보다 4시간뒤 개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오6시40분 나는 소련대사관에 전화를걸어 아나톨리·도브리닌대사를 불렀다. 잠자리에서 불려나온 그는 잠이 덜깬듯 어리둥절해했다(또는 그런 시늉을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에게이스라엘이어떤 공격적행동을 계획하고 있지않다는 충고를 받았다는 사실과 또 모스크바와 카이로 다마스커스에 이사실을 지급으로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브리닌은 당초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을 정당화하기위한 것에 틀림이없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에게 일부러 전화를 건것은 그 逆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도브리닌은 다른 별개의 안을 고집어내는 구실을 찾았다. 그는 지금 자기의 통신수단으로는 그렇게 빨리 모스크바에 연락이 될수있을지 잘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하트라인 (美·蘇직통텔렉스) 미국측 단말장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소련측단말장치가 외무성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이래서는 大國간의 위기가 발생했을때 하트라인이 무슨 역할을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역사상「기구한 시기」에 대통령 리처드·닉슨을 보좌했던 국무장관 헨리·키신저(右). 키신저는 닉슨이 워터게이트 추문에 휘말려있을때 中東戰을 맞아 닉슨 몰래「대통령 代行」까지 했다고 밝히고있다.

그래서 나는 백악관의 전화교환대를 도브리닌 소련대사에게 사용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대단히 고마운 듯이 이제의를 받아들였다. 사실을 말하면 이것은 난센스였다. 도브리닌은 비상한 통신망을 갖고 있었으며 수분안에 모스크바로부터 대답을 입수했다 (이사실은 더위급한 단계에서 증명됐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는 도청될 것을 예상하고 소련과 아랍우호국이 유착됐다는 비난에 대해 알리바이를 만들기위해 일부러 도청될수있는 미국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것이었다.

상오7시 뉴욕주재 자야트이집트외상에게 전화를 했다. 시간과 설명을 절약하기위해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주었다. 한편 나는 워싱턴에 있는 국가안보회의(NSC)의 스코크로프트 副보좌관에게 나의 不在時의 워싱턴특별행동그룹(WSAG)을 상오9시에 소집, 다른 미국정부간부의견해를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상오 8시15분 자야트외상이 카이로의 반응을 전해왔다. 그는 이스라엘로부터 도발이 먼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공군기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 함정이 수에즈만의 이집트軍기지를 공격했으나 격퇴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스라엘이 속죄의날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생각도 할수 없었으며 동원도 않고 전쟁을 벌일 수는 없기 때문이었다.

상오 8시29분 이번에는 샤레브 이스라엘 대리대사가 워싱턴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본국으로부터 연락에 의하면 이집트와 시리아 공군기가 30분전부터 전 전선에 걸쳐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오 8시30분 나는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양국 왕에게 긴급전보를쳐 전투회피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긴급전보는 최고의 우선권을 갖고 수분내에 상대국에 도착한다). 나는 크게 희망을걸지는않았다.

이스라엘 "埃·시리아動態 수상하다"

駐美蘇大使 도브리닌에 연락 "모스크바와 不通" 시종발뺌

第6艦隊 中東집결명령…美·蘇 긴 투쟁 시작

만일 공격이 계획적인 것이었다면 아랍온건파의 양국은 그것을 막을 힘이 없기 때문이었다.

상오8시35분 나는 닉슨 대통령과 플로리다州 키비스케인에간 헤이그 백악관비서실장 (현국무장관) 을 불러 대통령에게 전쟁이 시작된 것같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당부했다.

나는 또 스코크로프트에게 전화를걸어 정오까지 먼저 제6함대(그때 6함대는 스페인과 그리스 각港에 산재해있었다) 를 中東지역에 집결시키도록 할것과 필요하면 지중해의 美함정을 증강시킬것을 계획하라고 지시했다.

군함의 이동까지는 불필요하더라도 미군의 즉각대응체제는 강화해두어야만했다.

각省、廳은 마음대로 기자회견을 하지말것과 무언가 얘기할 필요가 있을경우에는 헤이그와 내가 체크하도록 결정했다.

상오9시 샤레브는 긴급전화로 이집트군이 수에즈운하를 넘으려하고있다고 전해왔다. 海戰의 얘기는 이집트가 억지로 끌어붙인 허위였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상오9시부터 워싱턴정세분석실에서 WSAG회의가 시작됐다. 여기에 제출된 정보는 내가 이미 뉴욕에서 들은것보다 늦은것이었다. 분명히 군사작전은 시작됐다는데도 불구하고 美정보기관의 종합상황평가보고는 의도적인 전면전쟁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되풀이 주장했다. 뉴욕시간으로 상오9시20분까지 나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갖지않고 받아들였다.

나는 도브리닌 소련대사에게 이집트와 시리아가 기습공격을 개시했다는 점과 만일 中東이 美蘇가손을쓸수없는 영역밖으로 떨어져 간다면 이미 구축된 東西관계가 허물어져 위험의 굴속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蘇쌍방은 각자 헌신적인 협력을 서약하면서도 공공연한 대결을 피한 가운데 서로 상대방의 동맥를 베버리는 긴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美,國防전략混線 돈만 浪費"

WP紙 國務省비밀회의 速記錄… 헤이그發言공개

【워싱턴 20日=曺淳煥특파원】워싱턴·포스트지는국무장관실에서 고위국무성관리들이 참석한가운데 헤이그장관 주재로 통상 아침8시30분에 열리는 비밀장막속의 회의내용을 기록한 노트를 입수、29일자1면에 크게 보도했다.

지난1월 4일간의 중동여행을 마친 헤이그장관은 캠프·데이비드협상전망에 낙관적인 일반의 관측과는 달리『미국만이 이스라엘을 옹호하여 고립되는 가운데 이집트는 아랍세계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1월18일 국무성아침회의에서 말했다고 포스트지는 보도했다.

미국무성고위회의에는 국무부장관、4명의 차관、의회담당차관보 공보담당고위관리、헤이그측근참모、그리고 정보담당관리및 그날의 주요문제에 관련된 책임관리들이 참석하며 공적으로 말못하는 것이 서슴없이 거론된다는 것이다.

케링턴영국외상이 중동문제를 다루는 태도에 불만을 품게 된 헤이그는 작년10월 15일 이회의에서 케링턴을『겉과 속이 다른 사생아』로 혹평했다.

◇헤이그美국무장관

헤이그는 국무장관이 된후 약1백번의 아침회의를 주재했는데 그중 24번의 회의기록속기노트를 그회의에 직접참석한 국무성관리로 부터 입수했다고 포스트지는 밝히고 그속기노트가 그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리들과 접촉하여 대체로 회의내용과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얼마전 국방성고위회의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어 레이건행정부는 국방성고위관리들을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하는등 신문에 몰래 새는『리크』를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에 이번에 국무성장막회의의 내용이 공개되어 관심을 끈다.

포스트지가 보도한 국무성 장막속의 비밀회의내용(헤이그의 말)을 간추려 옮긴다.

▲82년1월18일회의=미국은 일관된 방법으로 국방전략을 밀고 나가지 못한다. …전반적전략개념 없이 미국은 밤위에 달러를 부어 넣고 있다고 미국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작년6월 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 조기경보통제기판매문제를 다룰 때 국방성은『나이브』(물정을 모르는 순진함) 했다.

"埃、곧 아랍陣營복귀

레이건에충성 敎條주의자들 일망쳐"

▲82년2월5일=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레이건에 충성하는 교조적 고집불통들은 매번 구멍을 뚫어 일을 그르치게했다. 대통령도 그걸 알게 되었고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들은 재크·캠프의 세계속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재크·캠프는 뉴욕주출신하원의원, 유력한 공화보수파로 세금대폭삭감아이디어를 내놓았음)

▲81년10월15일=대통령의 필라델피아 연설초안의 오만하고 호전적 어조의 부문을 없애야 한다. 국무성이 그오만한 부문을 견제하지 않으면 언론들이 레이건에 말할것이다.

▲81년2월19일=카터행정부아래서는 전세계에 걸쳐 미국인의 눈과 귀가 의식적으로 거세되었다.

▲82년6월6일=국무성으로부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새어 나간다. 추문폭로자들(기자들)이 국무성관리들과 잘도 접근한다. 추문폭로자들이 논평을 원하기만하면 언제나 얻어 낸다. …나는 워싱턴신문기자들에 우리들의 기강이 서있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언론활동에 객관성이 없다.

▲82년1월4일=프랑스는 아랍을 만족시킬 만한 무기를 생산하지 못한다. 이집트가 아랍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걱정된다. 이집트는 팔레스타인문제에 관한 자치토의를 원치 않는다. (팔레스타인독립을 원한다는 뜻)。프랑스가 이집트에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사우디는 거만한 정신자세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아주 파괴적이다.

▲81년1월4일=폴란드의 채무불이행은 서독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다.

폴란드채무불이행의 파급효과는 예측을불허하며 東·西무역을파괴할지도모른다.

▲82년1월18일=대만에고성능무기를 팔지 않기로 레이건행정부가 결정하는데 국무장관이 주요역할을 했다고 에번즈와 노박컬럼이 오늘아침에 보도한 것은 시기상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의회증언에 말썽을 불러 일으킬것 같다.

야루젤스키 辭任할듯

波 黨중앙위·議會 곧소집 將來문제 논의

勞組정치활동금지 指針발표

【바르샤바21日AP綜合=聯合】폴란드는 오는24·25 양일간 지난12월 계엄선포이래 처음으로 공산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서 26일부터 의회를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폴란드 장래문제토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샤바 공산당 소식통에 의하면 이번 공산당 전체회의의 주요의제는 공산당제1서기겸 수상 보이체흐·야루젤스키의 거취문제와 계엄의 존속시한문제및 자유노조의 장래문제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야루젤스키가 黨제1서기직을 사임하고 계엄사령관직만을 맡는등 폴란드정부의 고위직에대한 대규모 인사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루젤스키가 黨제1서기직을 사임할경우 강경파인 스테판·올조프스키가 후임자로 유력시 되고있다.

이에앞서 폴란드정부는 자유노조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체포된 자유노조지도자 4천명에대한 노조활동복귀를 막는등 앞으로의 노조활동에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관영 PAP통신을통해 발표된 이 노조활동지침은 계엄포고령에 의해 모든 노조활동이금지된후 처음으로 노조에 대한 정부의공식입장을 밝힌것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은 최후수단인 경우에만 한해 허락했다.

한편 보이체흐·야루젤스키수상은 黨중앙위 전체회의와 의회가 폐막된뒤 3월초에 모스크바를 공식방문, 브레즈네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을비롯한 소련지도층과 회담할 예정으로 있다.

뉴델리 協力회의開幕

선진국에 對開途國 원조增大등촉구

【뉴델리21日UPI綜合=聯合】선진공업국들의 對開途國원조증대를 촉구하고 제3세계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키위한「뉴델리협력회의」가 한국등 세계44개 開途國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2일상오 뉴델리에서 개막됐다.

선진공업국들이 초청되지 않아 비공식적으로「南南회의」라고 불리는 이 회의는 작년10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린 南北頂上회의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간의대화를 재소통시키고 開途國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제3세계가 당면한 심각한 경제정세를 타개해 나가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오는 2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 회의에는 아시아·아프리카·南美의 개도국및 貧國들의 경제전문가·고위관리및 외교관들이 참석하며 개막식에 이어 2개실무그룹으로 나뉘어 ①국제무역·재정및 에너지에관한 선진공업국들과의 대화활성화방안 ②개도국자신들간의 협력증진방안등을 각각 토의한다.

◇엘살바도르개입 反對시위 美國의 엘살바도르개입에 반대하는 뉴욕에서의 군중시위. 이 항의시위는 엘살바도르 국민결속 뉴욕위원회의 후원아래 20일실시됐다. 【뉴욕20日AP發=聯合】

7艦隊東海서訓鍊

2월初…14척참가極秘로

【東京21日=聯合】美제7함대 소속 군함14척이 이달초 東海에서 극비리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日本의 일간지 산께이(産經)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5만2천5백t급 航母 코럴·시호와 미사일함재순양함 2척을 주축으로한 이 7함대 기동부대가 이달초 東海上에서 수일동안 훈련을 실시한후 사세보(佐世保)와 나가사끼(長崎)의 美해군기지로 귀환했다고 말했다.

이 보도는 美7함대의 훈련이 東海上에서 실시된것은 지난 69년이래 13년만에 처음있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7함대는 지난69년4월 美EC121機 격추사건과 관련, 北傀에 대해 그들의 군사력을 과시할목적으로 東海에서 훈련을 실시한바있다.

테헤란 兵營밖 爆發사고

民兵隊員등 20여명 死亡

【테헤란22日AP=聯合】테헤란의 한병영바깥에서 22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적어도 20명이 사망했다고 사고현장에 있던 한 혁명수비대원이 전했다.

이대원은 사망자중에는 3명의 민병대원과 여성3명및 어린이1명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방송은 테헤란 남쪽지역에 위치한 발리아스르 병영외곽에서 발생한 이 폭발사고로 몇몇보행자가 사망 혹은 부상했으며 창문의 파편이 3백m나 위로 튀어 올랐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목격자는 거리에는 직경 10m의 구멍이가 파였으며 병영의 보호담벽이 15m정도 무너졌다고 전했다.

사고발생후 혁명수비대원들은 현장주변을 차단하고 사망자 발굴작업에 나섰다.

메아리

새봄의 汚染

여느해에 비겨 평균10도가 높은 영상9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와 각급학교의 봄방학이 겹친 탓으로 21일의 일요일에는 상춘인파가 곳곳에서 붐볐다.

서울시 언저리에서만도 시내의 고궁과 어린이대공원 매표소는 밝은 봄치장을 한 인파로 계절에 한걸음 앞선 꽃밭을 이루었으며 성북역、신촌역앞 광장에는 멀고 가까운 교외로 빠지려는 등산차림의 젊은 남녀로 법석이었다한다.

또 서울을 에워싼 높고 낮은 산자락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뒤에 뒤를 이어 번화가보도에서 겪는 잡답함이 오히려 무색한 지경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처럼의 따사로운 봄날 휴일을 찾는 도심의 공해속에서 벗어나 대자연과 교감 또는 명소에서 즐기고자 하는것은 반가운 일이며 특히 등산인구의 증가는 권장할 일이지 결코 탓할바는 아니다.

한데 이 밝은 풍조와는 반대로 일부상춘객·등산객이 스치고간 자리에는 빈병과 깡통과 비닐봉지같은 행락쓰레기가 더미를 이루어 자연그대로의 정경이나 그윽함이 더럽혀지기 일쑤다.

지금 쓰레기는 서울시내에서만 한해 약8백만톤이나 쏟아져 나온다. 때문에 난지도의 89만평 처리장이 계속 매립되어 85년께에는 딴 곳을 물색해야할 형편일 정도로 쓰레기사태는 심각하다.

도심의 그런 쓰레기 공해를 벗어나려는 나머지 휴일을택해 산으로 들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하나 그바람에 자연속에 마저 함부로 깡통·휴지등을버려 쓰레기공해를 확산시키는 꼴이 되는 것은 방관못할 현상이다.

한동안은 등산로의 쓰레기를 줍고 곳곳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노력이 관공서나 기업체, 아니면 학교등의 이름으로 철따라 자주 거듭되어 그런대로 자연환경이 보전되는듯 했는데 근자에는 그 쓰레기가 눈에 뜨이게 다시 쌓여만 가는 것 같다.

적어도 산과 들과 물을 찾는 마음의 여유를 지닌 사람이라면 자기 몫의 쓰레기는 스스로 거두어 치우는 마음가짐쯤 갖출수 있는 시민적 자각이 아쉬워진다.

쓰레기로 오염된 자연은 곧 우리 마음의 오염과 그 궤를 같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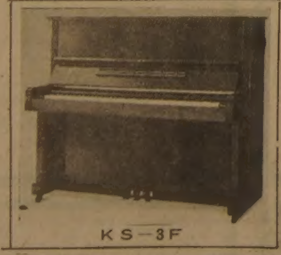
KAWAI 피아노 인벤토리 대매출 기간 : 2월27일까지

⊙본사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특별무이자 할부판매 (6개월한도내)를 단행했읍니다.
⊙은행대출알선이(1년-3년) 가능합니다

UPRIGHT 피아노

802-1
$3,995(Reg) $3,395(Spec)

802-M
$3,995(Reg) $3,395(Spec)


KS-3F
$4,595(Reg) $3,900(Spec)

그랜드 피아노

KG-3

전자올갠

E-620

E-360

US-50
$5,495(Reg) $4,670(Spec)

UST-7
$3,850(Reg) $3,310(Spec)

CE-7N
$3,125(Reg) $2,650(Spec)
(Open Walnut)

GS-30

대표 윤 호 섭

MARKHAM PLACE
2900Steeles Ave. E.
Thornhill
881-8211

HILL 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883-9407

秘錄 現代史発掘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13>

釜山에서 콜레라가 猛威를떨치던 1963년9월24일。제3공화국의 첫 대통령(5代)을뽑는 10·15선거는 콜레라의 기승도 아랑곳 없이 점차 初盤戰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다。

이날하오3시、최고회의 건물(현 기획원자리) 3층의 회의장에는 갑작스레 軍政首腦인 3軍참모총장을 비롯한 전최고위원들이 몰려와 자리를 잡았다。金炯旭중앙정보부장과 朴璟遠내무장관의 모습도보였고 얼마뒤에는 共和黨의 尹致暎당의장과 張炯淳사무총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최고회의 李周一부의장의 간단한 인사에이어 金정보부장이 입을열었다。『오늘아침 尹潽善씨가 全州에서…』

選擧史上 가장치열했던 10·15의 불씨가됐던 尹씨의 全州발언을 따지기위한 최고회의의 긴급본회의가 시작된것이다。

10·15선거는 5·16으로 2년5개월동안 계속된 軍政에 종지부를 찍고 民政으로 넘어가기 위한 첫번째 선거였기 때문에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이 선거에는 卞榮泰(正民會) 朴正熙(共和黨) 吳在泳(秋風會) 宋堯讚(自民黨) 張里浩(民主黨?) 尹潽善(民政黨) 許政、宋堯讚후보가 도중에(10월2일과 7일) 사퇴、사실상 朴正熙、尹潽善 두후보의 한판勝負로 압축됐다。그만큼 선거는 接戰이었고、따라서 각종 暴露戰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긴급회의는 보고에 이어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토론에 들어갔다。흥분한 일부 최고위원들은『국가안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선거를 치를수 있느냐、당장 尹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超強硬발언을 했고、또 일부 위원들은『사태의 추이를 좀더 두고 관망하자』는 愼重論을 폈다。

회의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점차 누그러져 결국에는 尹씨의 全州발언을 수사기관에서 認知수사토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暴露戰이 思想문제로 飛火

◇軍政과民政의 갈림길에서 5·16主體와 在野간에 對決을벌인 5代 대통령선거는 人身공격과 폭로戰으로 발전했다。사진은 64년10월 서울高校교정에서의 朴正熙후보❶와 南山야외음악당에서 열린 尹潽善후보연설회❷。

思想논쟁의 불을 당긴 문제의 全州발언은 尹씨가 이날 상오10시 全州市 高士洞에 있는 黃鎬晃씨(당시 民政黨全州지구당위원장) 집에서가진 기자회견내용。바로전날인 23일 共和黨 대통령후보인 朴正熙최고회의의장은 서울중앙방송을 통한 정견발표에서『이번 선거는 민족적이념을 망각한 假飾의 자유민주주의 思想과 강력한 민족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사상과의 對決』이라고 했었다。이말에 화가치민 尹씨는『우리는 假飾的異質민주주의와 대결하고 있다』고 되받으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제 麗水유세에서 느낀바있는데、麗水·順天반란사건의 관계자가 우리정부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한다고 생각했다…나는 오히려 朴의장의 민족사상이나 민주주의 신봉을 의심해마지 않는다。또 朴의장의『國家와 혁명과나』라는 저서를 보면…이집트의 낫세르를찬양하고 히틀러도『솜만한 사람』이라고했는데 이사람이 과연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을수없다…麗水유세때 나는 여러가지 생각이 가슴속에서 交叉했다。麗順반란사건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 한것은 아닐것이다。말이면 다하는줄알고…』

全州발언을한 海葦 尹潽善씨(前대통령)의 回顧를 들어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적인 비판이나 폭로를 하려고는 생각지 않았소。그런데 그 며칠전 朴씨측이 선거대책회의를하면서 나를 비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내가 무슨 애국자냐라는거요。그래서 참모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당시 朴씨에 관해 알고 있던 (麗順사건과 관련해)얘기를 되새겨 全州에서 꺼낸것이오。내 말을 듣던 기자들도 당황해 자꾸 반문하더군요。나중에는나보고 다시 정리해서 말해 달라고까지했지』

5대大統領 선거論爭

"舊政治人은 異質" 비난받고 화난尹후보 提起…在野합세

海葦의회고가 말해주듯『思想논쟁』은 朴의장의 舊정치인과 野黨비난에대한 反擊用으로 제기한것이 분명하다。

尹씨는 참모들과 의논하지않은이유에 대해『참모들이 혹시 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당시 尹씨의 참모였던 L씨(6選의원 前新民黨최고위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全州발언이 있기 전날 海葦선생의 찬조연사인 尹濟述씨가 麗水유세에서『麗順반란사건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죽었느냐、살았느냐?살았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무슨일을 하고있는가를 여러분은 아는가、모르는가。여러분이 모른다면 저鎭放山은 알것이다』고 말했어요。全州에와 여관에서 이말이화제가됐는데、海葦선생은 시종 침묵만 지키고 아무말도 안하더군요』

麗順軍반란사건은 1948년 10월20일 濟州道의 좌익폭동진압을위해 麗水에 집결했던 제14연대가 내부에 잠입해있던 金智會등 공산분자의 선동으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다。따라서麗順사건을 들어 朴의장을 몰아붙이려는 발언에 최고회의와 共和黨이 가만있을수는 없었다。공화당은 26일 張炯淳사무총장을 告發人으로 尹씨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서울地檢에고발했다。

그러나 당시의 최고회의나 공화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적으로 事實無根인데 尹씨의 발언에 휘말릴 경우 선거전에 큰 차질이 온다는 판단에서 일단 관망해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게 당시 관계자들의 회고이다。

공화당의장으로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尹致暎씨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다。尹씨는『麗順사건당시 내가 내무부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발언이 허무맹랑한 공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그래서 공화당은 그 발언에 맞서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읍니다』고 했다。

그러나 全州발언 다음날인 25일 在野6개정당(국민의당、民政黨、民主黨、自民黨、正民會、自由黨)이 참여한 공명선거투쟁위가 서울校洞국민학교에서 주최한 시국강연회에서 在野인사들이 일제히 朴의장의 사상적 불건전성을 들고 나옴에 따라 상황은 急變했다。

이들 在野인사들은『北韓에는 共産黨이 있고 南韓에는 共和黨이 있다』、특히 前民主黨대표최고위원이었던 金俊淵씨는 타임紙의 글까지 인용하면서『朴소장은 전에 공인된 공산주의자였다…그러나 그는 전향하여 麗順반란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게다가 강연이 끝난뒤에는「救國靑年同志會」란 단체의 명의로「간첩 黃泰成(前北傀무역副相)사건의 全貌를 밝히라」는등의 비라 10여장이 뿌려져 수사진을 긴장케 했다。

사태가 이같이 심각해지자 최고회의와 공화당도 반격을 시작、思想논쟁은 불꽃을 튀겼다。

최고회의 李厚洛공보실장은 이튿날인 26일『朴의장과 혁명정부의이념에대해서는 5·16혁명을 환영、합리화하고 또 1년여 혁명정부의 대통령으로서 신명을 적극 지도협조해주신 尹씨에게 물으면 잘 알것』이라고 반박했고 공화당의 徐仁錫대변인도『尹씨는 二重인격자』라고 화살을 퍼부었다。

특히 徐대변인은 62년5월4일최고위원이었던 柳原植씨가 某日刊紙에 기고했다는 글을 인용『혁명군의일원이었던柳씨가 60년말께 당시 대통령이었던 尹씨에게 혁명의불가피성과 軍에서 혁명이 계획되고 있음을 밝히고「혁명이 일어나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단 사표를 내면 혁명군이 사임을 말리고 그대로유임토록 할것」이라고 말해 尹씨가 이에 동의했다』고 비난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중앙정보부가 간첩 黃泰成사건의 진상을 발표한데 이어 28일에는 金炯旭부장이 기자회견을 自請『간첩 黃이 朴의장을 만났거나 친면이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이며 더구나 그가 공화당조직과 관련이있다는 얘기는허무맹랑한것이다。麗順반란사건 관련자가 정부안에 있다는것도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共和黨측의 반격이 加熱되자 선거 中盤戰에 접어들며 野黨측의 공격도 격렬해졌다。

尹씨는 계속『만약 여러분이 異質的사상의 비행기를 탔을때 그 비행기가 平壤으로 갈지 누가 알겠느냐』(10월6일 春川발언)『공화당은 간첩 黃이 가지고 온 돈으로 공산당식으로 조직된 정당이다』고 몰아댔다。여기에 국민의당의 許政후보도 간첩 黃의 진상을 더욱 자세히 밝히라고 했고 自民黨의 宋堯讚후보도 獄中연설을 통해『朴의장의 정치노선은 불투명하다』고 합세했다。

당사자인 朴의장은 처음엔 침묵으로 일관했다。『반격할 가치조차 없는것』이라는게 그의입장이었다。

朴의장은 尹씨의 全州발언 직후 私席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을 뿐이었다。

당시 최고위원 K씨(6·9代의원)의 述懷。

『尹씨의全州발언직후 우연히 청와대에서 朴의장과 자리를 같이 했읍니다。그때 朴의장은「해방후 같은 陸士구대장을 했던 친구가 나중에 좌익계로 잡혔는데 나를 마치 자기편인양 불었어。덮어씌운것 같아。내가 왜 공산주의자란말인가」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나 野黨측의 思想공세가 치열해지자 朴의장도 응수하기 시작했다。

朴의장은 서울中·高校에서 가진 첫 유세(9월28일)에서『容共세력을 혁명으로 일소해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하는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라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뒤 10월4일 麗順반란사건의 진압작전을 맡았던 前헌병총사령관 元容德예비역중장이(48년 당시 湖南지역軍총사령관)「朴의장은 麗順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討伐軍작전참모로서 叛徒진압에 큰공을 세웠다』고 해명하고 나서 사상논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元씨는 이어『朴씨는 그뒤 軍內에서 좌익으로 몰려 15년求刑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무혐의가 밝혀져 곧 무사하게 됐다。이는 그당시 金昌龍특무대장이 조작한 肅軍공작때문이었으며 朴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방경비대장교들이 이러한 禍를 입었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朴후보"容共세력 一掃한 나를 그렇게 몰다니…"

이어 金昌龍특무대장의 副官이었던 申升植씨의 肅軍경위설명이 첨가됐다。

『肅軍중반기에 南勞黨조직부 특수책 李在福이 체포됐는데、그가 군내부의 파괴공작을 목적으로 元容德 丁一權 金白一 朴正熙장군등 우수 지휘관들을 허위로 프락치라고 진술했다。이때 이를 기화로 金昌龍이 朴장군에대한 개인 원한을 풀고 숙청하려했다。그러나 심리도중 軍內 프락치의 전체系譜가 명백해지자 무혐의가 된것이다』

선거가 종반전에 접어들면서 朴의장은 野黨측의 사상공세에 스스로 직접 해명에나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투표 5일을 앞둔 10월10일에는 기자들에게『간첩 黃은 兄친구이지만 내가 잡아죽이라고 했다』고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뭏든 思想논쟁은 5·16주체와 在野간의 死生決斷과도같았던 5代대통령선거의 熱戰이 가져온 副産物이었다。

朴의장으로서는 만일 패배한다면 5·16과 軍政기간중의 실적이 不法과 無로돌아가는것이어서 사실상 背水陣을 친셈이었고 尹潽善으로 뭉쳤던 在野를대표한 尹씨역시 落選은 곧「舊勢의 復歸不可」로보고서로「이에는 이、눈에는 눈」式으로 처절한 決戰을 벌였던것이다。때문에 사상논쟁은 이슈라기보다 비방·폭로전의 일환으로 튀어나온것으로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국 思想논쟁은 끝막음을 하지 못한채 10월15일 투표일을맞았다。투표결과는 15만票의 아슬아슬한차이로 朴의장에게 辛勝을 안겨주었다。

麗順반란사건의 본거지 麗水는 1만3천票對 1만8천票로 尹씨가 앞섰지만 順天에서는 1만4천票對 1만1천票로 朴의장이 이겼다。全南지역전체에서는 28만票나 朴의장이 尹씨를 앞섰다。思想논쟁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투영됐는지를 이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

【特別取材班】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一漢 ㊺

執筆을 끝내며

나의 이력서를 1950년대 중반에서 끝내는 것은 이후에 있었던 일은 신문에 게재하기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물론 이동안 나개인에게도 많은 변모가 있었고、또 하고싶은 이야기도많다。

그러나 지난20여년간의 일은 이시대를 같이 산분들과 엮여있는 것이 많아 아직은 글로 쓰기가 적당치 않은것 같다。

나는 올가을로 선교사의 정년인 만65세가 된다。다행히 미국선교부에서 2년을 연장해주어 당분간 한국에 머물수 있게 됐지만 내가 태어나、일해온 고향땅 한국에서 계속 일하며 살고 싶다。

"韓國서 계속 活動하고싶다"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싶다고 현재의 심경을 털어놓는 元一漢박사。

한국교회는 오는 84년으로 선교1백주년을 맞는다。그동안 한국교회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선교부가 속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만도 신자가 1백20만명이나 되며 장로교 전체로는 자그마치 4백만명에 이른다。다만 성장과정에서 교화가 여러교파로 갈라진 현실이 가슴아프고 부끄러울뿐이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할수 있었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일먼저·선교정책을「자립교회 육성」으로 삼았던 점을 꼽고싶다。

장로교 선교부는 초창기부터「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유지하며 스스로 다스린다」는 3대원칙아래 자립교회책을 써왔다。선교정책을 의타심으로 일관했거나 신앙적인면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었던들 오늘과같은 성장은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4·19가 나던해 白樂濬 총장의 참의원 진출로 공석이된 延世大총장서리로서 겪었던 혼란의 소용돌이、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방한시 통역을 맡았던 일등은 자세히 밝힐 기회가 있을줄로 믿는다。

한국에서 평생을 보내는동안 가슴아팠던 때는 아내 존·데이비슨이 뜻밖에 세상을 떠난 순간이다。존·데이비슨(한국이름 태요한)은 73년2월 미국 각지방 교회를 순회강연도중 불의의 병을얻어 별세했다。

그는 75년 12월 미국에건너가 한국선교실정을 순회강연중이었다。하루는 배가 몹시 아파 병원에 입원하여 열흘간 갖가지 현대의학 치료를 받았으나 식도가 터져 운명을 달리했다。이때 아내는 회갑을 갓넘긴 나이였다。

나는 1년후 梨花女大音大 종교 음악과 교수인 도로디·왓슨(한국명元聖喜)과 재혼했다。왓슨은 호주인으로 60년초 여전도사로 한국에왔고 서양인으로서는 梨大(성악과)를 처음 졸업한 사람으로 알고있다。

왓슨교수가 나와 똑같이 元씨라는 한국성을 가진것은 우연이었다。그런데 친구들이 어떻게 同姓끼리 결혼할수 있느냐고 놀릴때 마다『아내는 호주 元씨이고 나는 원주(또는 연희) 元씨로 본관이 다르니 괜찮다』고 응수한다。

연희元씨야 단연 언더우드家가시조이지만 원주元씨는 10여년전 원주元씨 종친회로부터 명예종친으로 추대된바 있기때문에 호적법상 전연 하자가 없는 것이다。

延大總長시절·아이크通譯·아내 死別등 숱한일 생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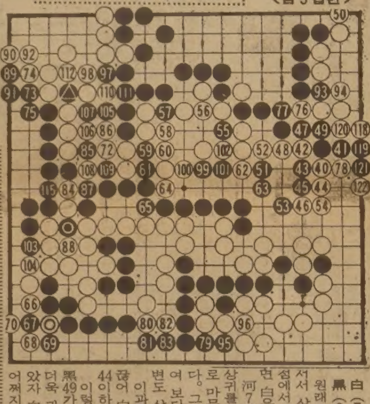
재혼한 그해 가을 나는 환갑을맞았다。서양에서는 찾지않는 이날을 그냥 넘기지않고 延世大에서 과분한 축하연을 마련해주어 무척 고마왔다。나는 이자리가 元一漢의 회갑축하가 아니고 57세로 별세한 할아버지와 회갑을 지나기는 했으나 피난시절 釜山에서 아무런 축하회도 갖지못했던 아버지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인사말을 했다。그분들이 한국에서 못다한일을 계속하며 한국사람들속에 파묻혀 살고 싶은 것이 현재의 내 심정이다。이력서를 읽어준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映畵史의 金蘇東씨 내일부터 本欄집필

元一漢씨의 이력서에 이어 한국영화史의 산 증인이며 藝術院회원인 金蘇東 박사(72)의 글이 연재됩니다。일찌기 法官의길을 걷다가 春史 羅雲奎의 영향을받아 영화의 길로 뛰어든 金박사는 지난40여년간 감독으로、시나리오 작가로 활약해오면서 한국영화발전에 큰발자취를 남겼으며 예술원회원외에 現재 漢陽大명예교수、한국映畵學會長、한국영화문화협회장등을 맡아 바쁜나날을 보내고 있읍니다。이제 지나온 인생의여러起伏들을 숨김없이털어놓는金박사의 告白에 독자여러분의 성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3局 第7譜 140~222 (각5시간 덤5집반)



白 (7段) 河燦錫 〈1勝1敗〉
黑 (6段) 姜哲民 〈0勝4敗〉

원래 우상귀白은 즉시 50으로 내려서 살아두어야 한다。그러나 이시점에서 黑이 우변을 54자리에 벌려오면 白은 더해볼 곳도 없게된다。

河7단이 白40으로박치기한것은 우상귀를 50으로 살기전에 우변을 선수로 마무리지으려는 승부수이기도 했다。그리고 이것은 보기좋게 성공하여 보다시피 우변을 白이확보하고 상변도 살려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과정을 보면 白42、黑43으로 맞끊어 白이 위험할것 같았는데 실은白44이하 48로 달아나는 수가 있었다。

이렇게되자 黑이 오히려 난처하다。黑49가 부득이한 후퇴인데 白50때는 더욱 괴로왔다。黑51로 白52자리를 틀었자 白두점은 잡히지 않는다。黑51을 어쩌지 못하고 두어야하는 姜6단은

黑、不運의 逆轉敗

저도 모르게『허참 그런수가 있었군』하고 기막힌 표정。

黑51、53이 불가피한 때문에 白은 54로서 그간 황무지였던 곳을 말끔히 개척하여 이순간 승리의 길이트였다。

黑55、白56을 교환한 장면에서 趙南哲 8단은 말한다。

『이黑55를 일찌감치 선수했더라면 黑51로 52자리에 회돌이하여 중앙白을 위협하는 수단이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효과가 없다』

이것도 운이라면 운이랄까。黑57、59가 묘수이긴하나 白이 64의 선수로 살고 게다가 좌하귀白66을 당하여 오히려 黑이 손해。黑57을 66에 두었더라면 무서운 계가바둑이었는데 결국 白이 9집반을 이기고말았다。黑123이하는 총보로。71…◎。113…85。114…▲。116…●。117…108。【一凡】

女性界 소식

家族法개정 세미나 크리스천 아카데미

크리스천·아카데미는 26일~27일「한국가족법개정의 爭點 재검토」를 주제로 한 대화의 모임을 갖는다。발제강연은 김용한교수(건국대)가 맡고 허영교수(경희대)가 발표하게되며 종합토의도 갖게된다。문의전화993-6101。

새會長에 鄭光謨씨 소비자 보호협의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19일총회에서 새회장에 鄭光謨씨(사진·한국소비자연맹회장)를 선출했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YWCA연합회、주부클럽、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소비자연맹등 5개여성단체의 협의기구이다。

傳統茶道 특별강습

한국문화재보호협회는 3월첫주부터 1개월과정으로 한국의 전통茶道특강을 시작한다。「한국의 집」에서 갖게될 이 강좌의 강사는 龍雲스님(大興寺주지)과 張世淳·高明錫·尹瑾玉씨등。문의전화[illegible]1074。

어린이합창단 모집

서울YWCA는 창립60주년 기념으로 어린이합창단을 조직하기위해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자격은 국민학교4~6학년어린이、마감27일。

호적에대한 상담 YMCA 중계실

YMCA시민중계실은 24일 상오10시~하오3시 호적에대한 직접상담과 전화문의를 받는다。상담에 申慈熙씨(호적법률회장)、문의전화[illegible]3181。

한국 538·2361

女子의 마음

異國서 꾸는 고향꿈

나에게 고향이란 논과밭이있고 샛강과 과수원、초가집과 우물이 있는 그런 낭만적인 고향이 아니다。서울시내에서도 종로구의 아스팔트 한자락이 끝난모퉁이전만 동네 이름만 들어도 반갑고 꿈을 꾸면 으레 철둑며 오랫동안 살았던 작은 한옥이 등장하여 옛날로 돌아가곤 한다。그럴때면 친정집에 무슨일이 있나、한국에서 편지가 오려나、기다려지기도한다。

처음 이민와서는 꿈을꾸기만하면 한국이요、서울가족들과 친척、직장동료 하다못해 동네 사람들까지 만나보곤 하였는데 여기서 산지도 그럭저럭 10년가까이 되고보니 이제 이곳의 꿈을 자주 꾸게된다。역시 생활환경이 어쩔수 없나보다。전에는『고향이 따로 있나 정들면 고향이지』하는 유행가를 무심히 들었는데 막상 고향을 떠나 오래 살고보니 유행가 가사가 너무나 실감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내인생의 반을살아온 서울에 대한 추억은 가슴속과 온몸의피부에 알알이 박혀있어 어쩌다 꿈으로라도가보면 그렇게 반가울수가없고 꿈을깨면 그리움으로 가슴이 저리곤한다。그럴때면 한편으로 어린나이에 고국을떠나온 아이들의 기억엔 어떤고향이 남아있을지 생각해보게 된다。잠꼬대까지 영어로 하는 애들이 먼 훗날 고향꿈을 꾸었다면 어디가등장할까。백나라 인종이 모여사는 시카고가 고향아닌 고향으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있을테니 왠지 쓸쓸하고 안타깝기만하다。【이규동·3821 N. Sayre Chicago ILL. U.S.A.】

김명종 한약방

보약(탕약과 엑키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745-2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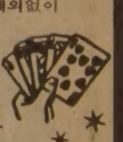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뱅킷·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의 정찬.
영업시간: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스파다이나 코너)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MR. CHOIS RESTAURANT

점심 도시락을 주문 배달 합니다
⊙스카보로 지역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759-8512
최 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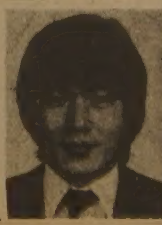
당신의 운명을 말해드립니다
(손금 카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드림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시는 당신께 꼭히 도움이 되어드릴것을 약속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는 어느분이든 예외없이 충고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와 보세요! 초능력적인 힘을 보실것입니다.
●예약은 필요없읍니다.



PRIVATE AND CONFIDENTIAL READINGS
291 AUGUSTA AVE
921-0552 7일 오픈 9시~저녁9시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큇 방,
오후 4: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yview / CHINA HOUSE / Bathurst / Bl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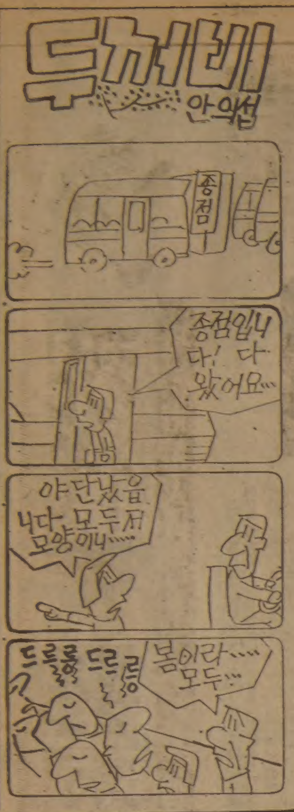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B) 535-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BIG SEVEN무역선물센타
(구 아세아선물센타)
●우황청심환, 녹용등
●각종 귀국선물 염가봉사
678 BLOOR ST. W. (고려식품 옆)
☎:533-7966 김 영 철



專門大 정원未達사태

전국의 34%인 44개교

82학년도 전문대 신입생모집에서 전국 1백27개전문대학중 34%에 달하는 44개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慶北、全北、江原등 지방전문대학들이 대부분 미달사태를 빚었다.

문교부가 22일 집계한바에 따르면 전문대 전체평균경쟁률은 모집인원 12만1천5백39명에 13만4천8백55명이 지원, 평균 1.1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지역및학교간에 격차가 심해 모두 44개교에서 1만6천6백76명이 미달됐다.

이같은 정원미달사태는 ▲4년제 대학이 정원을 30%나 늘린데다 ▲졸업정원제 실시로 편·입학의 길이 막혔고 ▲학력고사 저득점자들이 눈치만 잘 살피면 일반대학에 입학할수있다는 생각으로 재수를 택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전문대출신의 취업률저조현상등 복합적인 요인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있다.

慶北·大邱지방의 경우 총 19개전문대학 가운데 7개대학이 모집정원을 넘어섰을뿐 나머지 12개대학이 미달됐으며 특히 大邱공전은 1천4백72명모집에 5백20명이 지원, 61%가 미달됐으며 榮州경상전문대 54%, 慶北공전 33%가 각각 미달됐다.

全南지방도 11개전문대중 木浦해양전문대(4·3대1)를 비롯, 간호·수산계통의 5개대를 제외한 6개 공업·실업계통전문대가 미달됐으며 江原道 東草전문대는 정원에 무려 66%가 부족했다.

한편 대학 관계자들은『앞으로 대학운영이 큰 걱정』이라면서『당국이 별도의 전문대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社員모집、學歷 제한말길

文敎部 業界에 賃金격차 축소 요청

문교부는 22일 고학력위주의 고용정책과 학력간의 임금격차가 교육정상화와 사회발전에 장애가 되고있다고 지적, 신규사원채용시 불필요한 학력제한을 철폐하고 임금격차를 과감히 축소해달라고 관계부처와 각기업체에 요청했다.

문교부는 이날 보낸 협조요청공문을 통해 ▲신입사원 채용때 불필요한 학력제한을 철폐해줄것 ▲사업체의 인사·보수규정에서 중간기술인력(전문대·초대졸)의 위치가 정착될수 있도록 해줄것 ▲사업체 또는 기업체의 설립·운영을 규정하는 법령에서 일정비율이상의 전문직확보를 요건으로 규정해줄것 ▲지방소재기업체는 물론 서울에있는 기업체에서도 지방출신의 고용을 넓히도록 권장해줄것등 8개항을 요망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昌慶苑에도 화창한 봄햇살이… 날씨가 화창해지자 창경원의 모든 동물들이 밖으로 몰려나와 화창한 봄햇살을 즐기기 시작했다。 紅鶴들도 박수치는 어린이들앞에서 멋진 群舞를 솜씨를 고대하고 있다。【주부 金雲淑씨찍음·서울 마포구 도화동 114의10】

농구 李忠熙 슛 폭발

유고·中共 連破

【마닐라 바레인20日=聯】 주와이르독립 21주년기념 국제초청농구대회에 출전중인 韓國남자대표팀은 20일 對中共전에서 혼자44점을따낸 李忠熙(현대)의 수훈에 힘입어 93-88로 中共을따돌리고 승리를 거두었다.

이날 對中共戰에서 李忠熙는 44점을따내 최고득점을기록했으며 朴守敎는 25점을따냈다.

이로써 사실상의 국가대표인 北京팀을 내세워출전한 中共은 첫날경기에서 유고에 패한데 이어 2패를기록했다.

한편 韓國은 21일 3차전에서 전날 모리타니를 87-53으로 꺾은 유고를 82-77로물리쳤다.

◇2차전 韓國 93(39-54 44-44)88 中共 (1승1패)(2패)

◇3차전 韓國 82(36-46 35-42)77 유고 (2승1패)(2승1패)

敎授5명 再任用탈락

서울大、辭意표명교수등 포함

서울大는 82학년도 1학기 교수재임용을 위한 자체심사에서 부교수급이상교수 5명을 탈락시킨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탈락교수 가운데는 오랫동안 몸이아파 출근하지못해온 교수, 개인사업체를 갖고 있어 학교측에 사의를 표명한 교수등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서울大교수가운데 이번에 재임용대상 해당자는 정교수 2백43명, 부교수 9명, 조교수 33명, 전임강사 11명등 모두 2백96명이었다.

忠南大 百2명제적

【大田=聯】 忠南大는 22일 교무회의를 열고 성적이 불량한 5백34명을 학사경고하고 1백2명을 제적처분했다.

학년별로보면 학사경고는 1학년 3백87명, 2학년 1백21명, 3학년 14명, 4학년 12명이며 제적을당한 1백2명은 모두 1학년으로 대상은 학사경고 2회이상을 받은 학생들이다.

학사경고는 1학년이 평점 5점만점에 평균 1.75점미만이며 2학년이상은 1.25점 미만이다.

흡연은 肺癌의 주범

방광·신장·췌장암과도 相關 — 美공중위생長官 쿠프博士밝혀

【워싱턴22日AP=聯】 美공중위생장관 에버트·C·쿠프박사는『흡연은 폐암과 후두암및 식도암의 주요원인이며 방광암과 신장암및 췌장암과 상관관계가있다』고 22일 말했다.

흡연이 암과 관계가 있다는 美공중위생국의 경고는 여러번 있었으나 흡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암과 관련이 있는가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50만명의 공무원이 소속되어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일하는 미공중위생국장관인 그는『여러종류의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22~38%가 흡연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하면서 금연을 할 경우 이같은 비극은 피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폐암은 예방가능한 병이며 담배를 피우지 않을경우 폐암으로인한 사망을 85%로 줄일수있다』고 주장했다.

작년 한해동안 미국에서는 암으로 41만2천명이 사망했고 올해는 43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미국남자의경우는 폐암으로인한 사망이 지난50년부터 암사망원인의 수위를계속차지하고있다.

카페인제거한 코피 「맥스웰·생카」시판

東西食品은 일반코피에 함유된 카페인을 97% 제거한 「맥스웰·생카」를 개발, 시판하기 시작했다.

黃池驛 남녀殺害犯 남편眞犯단정、검거

【太白=聯】 속보=黃池역남녀피살사건을 수사중인 太白경찰서는 22일 이사건의 진범으로 趙한식씨(37·江原道旌善郡新東邑鳥洞里)를 검거,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趙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5분께 太白市 黃池역 대합실에서 부인黃金星씨(28)가 정부 申承晩씨(29·太白市黃池2洞18)와 함께 앉아있는것을 보고 격분, 준비하고있던 길이 20㎝의 식칼로 이들을 차례로 찔러 그자리에서 숨지게했다는 것.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③미도파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美·日의 半導體전쟁

日메카 九州南端… 模倣力으로 추격

超大型 集積回路가 최대爭點

81년 현재 市場占有 美서 50%、日은 30%

미국 半導體산업을 둘러싸고 샌프란시스코灣연안에 있는 실리콘·밸리라면 일본의메카는규우슈(九州)남부에 위치해 있다. 이래서 어느덧 규우슈에는 실리콘·아일랜드라는 별명이 붙었다.

실리콘섬의 半導體생산량은 VLSI(超대규모集積回路)의 개발로급격히 늘어나 78년 1억8백만개, 3백억엔이었던것이 80년에는 10억개 1천억엔으로 급성장했다.

일본의 半導體산업과 컴퓨터의 개발은 미국에비해 10년늦게 출발했다. 1957년「전자공업진흥임시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일본 通産省을 중심으로 대형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착수, 수백억엔의 연구투자를 했다. 컴퓨터제작회사인 日立, 東芝, 日本電氣, 富士通, 沖電氣, 三菱電氣등 6개사를 3개그룹으로 재편성하여 과당경쟁을 막았다.

그결과 컴퓨터의 본체인 하드웨어에서는 미국의 IBM을 바짝 뒤쫓게 됐으나 프로그램작성등 소프트웨어쪽에서는 아직도 격차를 좁히지못하고있다.

81년까지도 IBM이 전세계의 컴퓨터 시장의 半을 점유했으며 일본이 30%를 갉아먹었다. 현재 美·日간에 半導體… 이용기술이다. VLSI는 새끼손가락만한 한개의칩속에 10만~1백만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는것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 미국은 64K비트 기억소자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의 50%를 점유했는데 이번에는 日本電氣와 東芝가 56K비트짜리 VLSI를 개발, 量産體制에 들어가 미국을 위협하고있다.

일본은 컴퓨터산업의 자국보호정책을써서 일본에서의 IBM의 시장점유율이 2.2%인데 비해 富士通, 三菱, 日…

IBM은 美국방성의 방대한 予算과 항공우주국(NASA)의 방대한 기술개발에 힘입어 전후 36년만에 세계 1위의 컴퓨터 회사로 …

… 3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컴퓨터는 10%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본 通産省의 한 기술관은『일본의 컴퓨터는 模倣力과 應用力, 縮小力은 있으나 창조력이 없다』며 저력이 있는 IBM을 따라잡기는 어려울것이라고 말했다.

… 무게 30톤 … 거대한 빌딩과 같은 … 우주왕복선을 쏘아올린 … 컴퓨터기술은 일본에선 찾아볼수없다는 것이다.

IBM은 조셉슨 接合素子를 개발, 초고속 전산기를 만들었다.

이것은 전자소자를 영하 2백73도인 절대영도까지 냉각시키면 超電導현상이 일어나 電子의 흐름이 光速가까이 가속화된다는 조셉슨의 과학을 응용한것이다. IBM은 이의 기본동작시간 즉 스위칭 시간을 최저 1兆분의 1초까지 줄이는 초고속 전자계산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은 미국이 개발한 IC(集積回路)라는 새기술을 근거로 LSI, VLSI등 거대규모 集積回路를 개발, 미국을 위협하고있다. 컴퓨터를 제압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는 관점에서 美·日간에 벌어지는 半導體戰爭은 더욱 치열해질것 같다. 【東京=宋孝彬특파원】

한국、柔道·농구서 기염

쿠웨이트 國際大會 6체급중 5개석권

【매나마21日=聯】 韓國은 21일 속개된 쿠웨이트 건국기념국제체전 유도대회 이틀째경기에서 尹容勃(하프라이트급·65㎏), 李在浦(라이트급·71㎏), 白熙哲(미들급·86㎏)이 각각 우승, 금메달 3개를 따냈다.

이로써 韓國은 첫날 朴鍾勝(헤비급·95㎏이상)과 白長振(하프헤비급·95㎏이하)의 금메달을 포함, 이날 현재까지 벌어진 6체급중 5개체급을 석권했다.

花郞、우루과이비겨

印골드컵축구 체력열세로 2-2

【캘커타=聯】 제1회 네루골드컵 국제축구대회에 출전하고있는 한국대표팀 花郞은 20일 2차전에서 南美1급프로이며 강력한 우승후보인 우루과이를 맞아 예상외로 선전, 2-2로 비겼다.

花郞은 전반에 활발하고 재빠른 공격으로 우루과이를 압도, 2골을선취, 승리를 굳히는듯 했으나 후반들어 체력이 달려 2골을 허용하고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花郞은 2무승부를 기록, 결승진출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2차전(20일) 화랑2(2-0 0-2)2우루과이 (2무)(1승1무)

플라테 蹴球팀11명 45일出戰정지 징계

아르헨축구협

【부에노스아이레스AF=聯】 아르헨티나 축구협회(AFA)는 보너스 액수가 적다고 대전을 거부하여 말썽을 빚은 명문리베르 플라테축구팀 선수 11명에게 45일간의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물의빚은 조커선수 개런티서 罰金압류

한국권투위원회(KBC)는 22일 성실치 못한 경기로 물의를 빚은 泰國의 웰터급 선수 키아토사암·조커선수에게 KBC경기규칙 78조를 적용, 개런티의 3분의1인 3백달러를벌금으로몰수했다.

조커선수는 21일하오 문화체육관서 벌어진 李永純(80년웰터급 신인왕)과의 타이틀전서 전의를 보이지 않고 시종 도망다니며 7회에 KO패, 관중들의 야유를 받았다.

黃忠載 3回KO勝

도전자 구즈만에

동양 태평양권투연맹(OPBF) 웰터급 챔피언 黃忠載는 21일 釜山九德체육관서 벌어진 타이틀 13차 방어전서 필리핀의 도전자 단데·구즈만을 3회2분36초만에 KO로 물리쳤다. 오는 5월28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前WBA 웰터급 챔피언 피피노·쿠에바스(멕시코)와 대결할 예정인 黃은 정확한 오른쪽 카운터펀치를 구즈만의 턱에 맞추어 KO승을 끌어냈다.

李永河 세계氷速 30位

5千m

【앗센(네덜란드)20日=聯】 李永河(대우)는 20일 네덜란드 앗센에서 열린 82년도 세계남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첫날 5백m에서 30위에 머무른데 이어 5천m에서 13위…

流星의 賦 ⑯

虛妄의 時間 ⑬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 1592년 … 조선에 … 한나라에 진격할 목적을 … 방명을 내려놓고 있었다.

①선봉대는 關東地方으로부터 남해도(南海道)를 거쳐 규우슈(九州)에 이르는 해변지방 …

②선원은 …

③차선령 …

④조선에 … 소요된 …

⑤급여(給與)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준비하여 명년 봄까지 지시한 포구(浦口)에 도착하도록 하고 보고하라.

뒤이어 3월15일엔 군역(軍役)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

사국(四國)과 구주지방에선 봉록(俸祿) 1만석당 6百명, 중국과 기주지방(紀州地方)에선 1만석당 5백명, 근기지방(近畿地方)에선 1만석당 4백명, 오오미(近江)、오와리(尾張)、이세(伊勢)、미노(美濃)등 4개국에선 1만석당 3백50명, 기타지방 3백명, 2백50명, 또는 2백명씩을 차출할것이며 차출기일은 후일 정한다.

그런데 이 명령서엔 숙진(宿陣)의 혼란을 피하도록 각별 조심하라는 단서까지 붙어 있다.

이와같은 준비도중에 수길은 7월25일부로 인도부왕(印度副王)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발송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태평하므로 대명국(大明國)을 다스릴 뜻이 있는지라 불원 누선(樓船)을 띄워 중국으로 갈것이 확실하니 그 귀로에 귀지(貴地)도 찾을 작정이다…』

수길의 포부가 크다고 할 수도 있고 허황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아무튼 그의 대명원정(大明遠征)의 뜻은 확고한 것이었다.

8월23일(선조24년)에 수길은 행영본부(行營本部)를 구주의 나고야(名護屋)로 내정하고 그 지형의 정찰을 소서행장(小西行長)에게 명하고, 그 보고에 따라 그곳에 축성(築城)할 것을 결정하고 제후들에게 공사를 분담시키기로 했다.

한편 수길은 대마도의 종의지에게, 군량미 1만석, 백은(白銀)1천장, 병기와 화약을 주어 침략군의 선봉이 되도록 명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종의지는 조선사정과 조선어에 능통한 사람 1백40여명을 뽑아 각대(各隊)의 향도로 배치한 다음 대마도 연안에 암초(暗礁)가 많은 사정을 감안하여 해로안내자를 준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의 준비는 빈틈이 없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일부가 조선에 전해지지 않은바도 아니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43>

朴婉緖 作 / 金光培 畵

숨바꼭질 ㉚

집은 밖에서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썰렁하고 귀살스러웠다. 세간살이가 없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안채는 오래된 일본식 목조건물의 퇴락이 그대로 드러났다. 밤마다 구질구질하고 무시무시했다.

『오빠 무서워. 꼭 건드리기만 해도 무너져내릴 것 같아』

목이가 일환이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설마』

일환이가 목이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베니어판이 너덜너덜 떨어진 천장을 쳐다보았다.

『우리가 여기서 살았다는게 믿어지지않아』

『아무리 좋은 집도 이사떠나고나면 다 그런거야』

『돌아와보지 말걸 그랬어. 괜히 정만 떨어지게 생겼잖아』

목이가 울상을하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자아, 우리 목이 키부터 재보러 가야지』

일환이 일부러 떠들썩하게 굴면서 목이를 식당으로 잡아끌었다. 식당 가운데 기둥엔 눈금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일환이도 마루바닥에 잔뜩 쌓인 잡동사니를 발로 헤치고 목이를 기둥앞에 세웠다. 목이는 계면쩍게 웃으며 일환이가 시키는대로 했다. 일환이가 해마다 그렇게 해주던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따스하게 울렁거렸다.

『이상해』

『뭐가?』

『오빠가 나를 기른것같은 생각이 들어. 오빤 고아원을 떠나고나서도 설에 세배 올때마다 잊어버리지도 않고 내 키를 여기서 재주곤 했잖아』

일환이가 막대기를 집어다 기둥과 직각으로 목이의 정수리를 눌렀다.

『너무 누르지마. 키 안자라』

목이는 실상 정수리보다는 부푼 가슴을 누르는 일환이의 턱 밑에 더 신경을 쓰면서 비명을 질렀다.

『너야말로 발뒤꿈치 들면 안돼. 내 눈은 못속이니까』

기대기는 필요이상 시간을 끌고나서야 끝났다. 그러나 막대기 끝은 작년 선의 눈금 위에 정확하게 머물러 있었다.

『어머머, 오빠 사기 쳤구나. 내키가 조금도 안자랐다니 말도 안돼』

『짜아식, 넌 이제 다 자란거야』

『내가 다 자랐다구?』

『그래 넌 어른이 된거야』

일환이 목소리에 갑자기 근기가 생겼다. 목이는 그런 … 갑자기 생급스러운소리로 딴청을 부렸다.

『오빠 저것좀봐. 저게 다 우리들 쓰던거 아냐?』

식당에서 부엌으로 난문짝은 떨어져서 나동그라져있고 부엌바닥엔 헌옷가지 잡지 책 읽기장 수첩 일그러진 플래스틱 그릇 헌접조각등이 한트럭은 실히될만큼 쌓여있었다.

외딴집만 아니었으면 고물장사가 몇차례 넘나든곁로 대강은 처리됐을 대수롭지는 않은 아주 못쓸것은 아닌 잡동사니였다. 그러나 목이에겐 헤어진 친구들의 모습, 성격, 버릇까지 한꺼번에 떠오를만큼 낯익고 사연있는 물건들이었다.

『이거 때문에 춘자하고 정숙이하곤 끔찍이도 싸우더니만. 둘 다 음악이라면 사죽을 못썼거던』

목이는 그 쓰레기더미속에서 한쪽 딱지가 없어져 내장이 드러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주워올리며 감상적인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라디오뿐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밟고서있는 잿빛 내복의 팔꿈치를 기운 자국은 바로 그녀의 솜씨였다.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ADDRESS APT
CITY PROVINCE
POSTAL CODE PHONE

고향의 맛!
한식, 중국식요리 각종음식준비
— 각종국수 전문 —
서울하우스
615 BLOOR ST. W. ☎ : 532-0602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 일반광고 : 최성조
● 매매구인광고 : 박경욱
533-2361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사우디油價내리면 國內價도 引下

炭값은 3·4월께 小幅 현실화

정부는 사우디産 원유가격이 1달러만내리면 국내의 인상요인을 그대로두고서라도 기름값을 내릴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하루원유도입량은 61만6천배럴로 사우디産이 이중 53·1%인 32만7천배럴이다.

사우디産이 1달러내리면 국내기름값은 1·15%의 인하요인이 발생하게되는데 정부는 현재 환율상승등으로인한 인상요인을 안고있으나 物價安定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사우디産의 인하폭만큼 국내기름값을 내릴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계당국에따르면 經濟企劃院과 動資部는 지난1월1일자로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重質油가격을 배럴당 40~70센트씩 내리고 이란産이 두차례나 내려 국내기름값의 인하가능성을 검토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란産의 인하로 국내기름값은 0·95%의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나 그동안 환율상승등으로 오히려 2·80%의 인상요인이 생겨 현재 국내기름값은 1·85%의 인상요인을 안고있다.

정부는 현재 [illegible] 징수하고있는 석유안정기금을 축소하거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해서라도 기름값을 내릴것까지 검토했으나 [illegible] 하보다는 현재 세계원유시장에서 物量이 남아돌고 가격이 계속내리고있어 사우디産의 가격인하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보고 사우디産의 인하가 실현되면 국내기름값도 내리기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OPEC油價는 重質油가격의 인하로 輕質油가격의 인하가능성이 높고 영국北海産의 가격이 배럴당 35달러로 인하돼 質이 비슷하면서도 배럴당 36~37달러씩 받고 있는 아프리카産도 내리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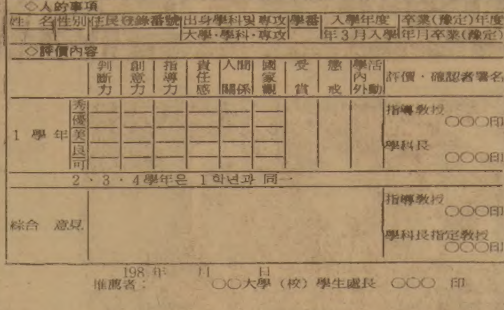
[illegible] 원유가격의 [illegible] 安定추세를 감안, 현재인상요인을안고있는석유값과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했다. 다만 炭값은 국내자원개발촉진과 광부들의 최저생계비보장을 위해 임금인상폭을 반영하는선에서 월동기가 지난3~4월께 소폭 현실화시킬 방침이다.

教授의 학생就業 추천

6項目·5等級 평가

4年間 한教授가觀察

人員관계없이 절대評價



6項目 判斷力·創意力·指導力 책임감·人間관계·國家觀

5等級 秀·優·美·良·可

문교부는 20일 대학생의 개인별기록카드로 보관되면서 졸업후 취업때 첨부될「교수의 학생추천서」모델을 확정, 전국대학에 제시했다. 이날 하오 天鄕大(溫陽소재)에서 열린 전국 1백개대학 학생처(과)장회의에서 제시된 이 기록카드는 학생의 품성을 ▲判斷力▲創意力▲指導力▲책임감▲인간관계▲國家觀등 6개 평가요소로 나누고 각항목을 수·우·미·양·가의 5등급으로 평가하되 인원에 관계없이 절대평가를 해 학과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평가표는 오는 새학기부터 작성을 시작, 학교에비치되며 내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때부터 각기업체에 보내 활용토록할 계획이다.

추천서 각항목의평가는 매학년말 지도교수가 상벌·학내외활동과함께 작성하며 4년간 누가기록한뒤 학과장과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제3의 교수가 종합의견을 써넣도록 돼있다.

문교부는 또 이평가를 최대한 정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학년별 지도교수제를 한교수가 한학생을 4년계속 맡는 학생별 지도교수제를바꾸도록했다.

한편 문교부는 이날제시된 모델이 지난5일의 전국학생처장세미나에서 마련된 시안을 토대로 외국의추천제도、기업측의 요청등을감안해 만든것이라고 밝히고「하나의모델에 불과한것이기때문에 대학들이 평가항목을 일부추가할수도있다」고 말했다.

이「추천서」는 대외비서류로 재학중에는 지도교수가 보관하며 졸업후에는 학생처에 비치, 기업체의 발급요청이 있을때는 이를 복사해 학생처장이 확인한후 인비서류로 밀봉, 기업측에 직접 보내게된다.

문교부는 이같은 추천서작성을 4년제대학생 전원에게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기업체들이 이추천서를 취업과정에서 어느정도 반영시키느냐는 기업자율에 맡겨져있다.

"내년엔「不正」용어 없게"

全대통령 忠南순시、벼품종 농민自律선택

【大田=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금년중에 부정부패와 不條理의 척결이 사회에 정착되고 국민들 몸에 배게해 83년부터는 부정부패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서 추방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忠南道廳을 巡視, 柳興洙지사와 6명의 관계국장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확인행정, 봉사행정의 확립과 행정의 간소화를 거듭 강조하며『上意下達과 下意上達의 행정체계를 확립, 위의 指示와 最末端 일선행정기관의 보고가 시간을 지체함이 없이 통달돼 즉각 처리될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多收穫 신품종의 보급문제에 언급,『官이 너무많이 개입하면 농민들이 거부반응을 보일수있다』고 지적하고『행정당국이 多收穫품종을 농민들에게 권장은 하되 농가에 일률적으로 할당하지말고 농민스스로 자발적이며 자율적으로 選定토록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정부가 夜間通行금지를 해제하는등自律、開放政策을 추진하는것은 국민화합을통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법과질서를 준수하는국민의식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하자는데 그목적이있는것』이라고 설명하고『최근 이같은 정책추진때문에 우리의 안보의식이 약화되고있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개방정책을쓰면 쓸수록안보의식은 더욱강화돼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大田市를 계획都市로 개발

中央權限 분산 示範도시로

【大田】全斗煥 대통령은20일 충청남도를순시、道內 각기관장및 各界대표인사들과 午餐을 함께했다.

全대통령은 이 자리에서『大田市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지역이라는점을 지적、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도시로 발전시켜 나갈것』과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중앙권한의 지방委任에 있어 大田市를 시범지역으로삼아 서울에 집중된 認·許可등의 행정을 지방에서 해결할수있도록 운영할것을 당부했다.

全대통령은『南北이 통일될때까지는 大田이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지로서중요한만큼 정부財源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年次的으로투자를 확산시켜 나갈방침』이라고 말하고『大田주변의工業團地도 더욱 발전시켜 서울인구를 大田에서 수용할수 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이와관련,『도시계획을 할때도 미봉적이고 산발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깨끗하고 국제적인 도시가 될수있도록 예산을 집중투자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鄧副主席職 辭任확실

胡耀邦밝혀、올黨大會서 指導的역할은 계속

【東京20日AP=聯合】중공의 실권자 鄧小平이 올해 열릴 黨대회에서 黨부주석직을 사임할것이라고 일본의 교도(共同)통신이 北京의 믿을만한 중공소식통을 인용20일 보도했다.

北京발 共同통신은 이소식통이 당주석胡耀邦으로 부터 최근에 이같은정보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보도는 鄧이 黨부주석직을 사임한후에도 중공정치에서 계속 지도적역할을 할것이라고 전망했다.

中共外交 중대轉換 모색

對蘇관계 正常化 가능성 示唆

【北京19日AP=聯合】중공은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의견으로 미·중공추축 형성이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소련과의 관계정상화 가능성을 배제하지않은 외교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는것같다고 北京의 외교업저버들이 19일 말했다.

그러나 지난60년대초이래 반목하고있는 중·소양대국의 관계가 정상화 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국가대 국가간의 정상관계가 재개되는것일뿐 양국간의 진정한 화해를 가져오지는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중공당부주석李先念은 정책연설을통해 중공내정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절대 용납할수 없다」고 선언,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에 간접경고했다.

朴成哲 副主席자격을 박탈

北傀、金正日승격위한 措置

【東京20日=聯合】북괴 朴成哲이 부주석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金正日외 부주석 승격을위한 조치로풀이돼주목을끌고있다.

20일 東京에서 청취된것으로 전해진 평양방송은 오는28일 실시되는 이른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추천자 6백15명의 명단을 발표하는가운데 박성철에게는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부주석 칭호를 붙이지 않았다.

이날 아침 7시 8시 12시 방송 모두가 金一과 康良煜에게는 종전대로 부주석칭호를 붙인데 반해 박성철은 노동당 중앙정치국장 부위원이라고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韓日 外相회담 구체日程 절충

60억달러에 관한 韓日經協은 오는5월초로 예상되는 양국外相회담을 통해 최종마무리될것으로 보인다.

韓日양국은 지난 18·19일 이틀동안 東京에서 열린 고위실무예비회담을 통해 대체로 이 [illegible] 구체적인 [illegible] 위해 외교적절충을 벌일방침으로 알려졌다.

◇盧外務 간디首相과要談 盧信永외무장관이 19일 뉴델리에서 인디라·간디印度수상과만나 양국간 경제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고있다.【뉴델리19日AP=聯合】

社會漫評

"原油요! 原油…"

政治資金 4億 國庫보조 요청

3黨 黨職者합의

民正·民韓·국민당등 3개정당의 주요黨職者들은 20일 모임을갖고 각정당의 자금난 해소를위해 오는3월중 4억원의 國庫補助金을 정부에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낮 서울 무역회관에서 올들어 첫모임을가진 이들은 정치자금 조달문제와 제110회 임시국회운영문제를 집중거론한끝에 이같이 합의하는한편 야당의 독자적인후원회구성이 어려운점을 감안해 중앙선관위를 통한 寄託金제도를 활용하는방안을 검토해보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全대통령 어제歸京

全斗煥 대통령은 忠南道 순시를마치고 20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歸京했다.

民防衛 45~50세 精神교육만

내무부는 20일 금년부터 민방위교육 훈련을 다시받게될 46세이상 50세까지의 대원에 대해서는 연간 4시간의 정신교육만 실시하고 지역민방위대원중 생업관계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교재만을 배포하는식의 방법으로 대처하는등 민방위교육개선책을 검토중이다.

李春九내무차관은 이날 民正黨과의 당정협의과정에서 교육대상연령을 45세로 다시 낮추어 줄수 없느냐는 요청이 나온데대해「당장 연령을 45세로 환원하는것은 어렵지만 교육방법을 개선하는등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李차관은 교육방법 개선안에 대해 현재 연간10시간(정신교육4시간, 실기교육6시간)의 교육훈련시간중 46세이상에 대해서는 정신교육만을 실시하는쪽으로 검토하겠으며 참석이 어려운 대원에 대해서는 교재를 배포하는것으로 대치해주는 방안도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

新設體育部 서열 文教部 다음으로

정부와 民正黨은 금년부터 民防衛교육 훈련대상자의 연령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키로했던 내무부측의 방침을 완화하는방향으로 재검토키로 합의했다.

民正黨은 19일하오 중앙당사에서 열린 黨政정책조정회의에서는 또 體育部신설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및 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부각 부처의 職制序列을 조정、「文教部」다음에「體育部」를 넣고 문교부장관의 소관업무중 체육에 관한 것은 체육부장관이 자동 승계토록 규정하고있다.

産業설비·建設중장비등 投資사업 검토

상공부는 주요 산업부문의 과열·중복투자를 제거하고 생산기반을 합리화 하기위해 발전설비、철도차량、건설용중장비、내연기관、중전기기등 대형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제를 실시키로했다.

상공부는 개정된 기계공업 진흥법에의거 사전검토대상업종을 예시하고 당국의허가없이는 해당 설비의 신증설을 일체 불허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농업기계、공작기계、섬유기계、건설용중장비、발전설비등 5개부문25개품목에 대해서는 전문생산체제를 확립、전문메이커를 지정하여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地平線

서울이 시퍼런 기름값에 주눅이 들었던게 먼 옛얘기처럼 들리게 됐다. 지난1월 사우디 아라비아가 퍼올린 기름이 고스란히 팔리지않아 탱크속에서 잠자고, 현물시장시세가 3년만에 처음으로 1배럴당 30달러선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앞으로 기름값은 2~5달러쯤 더 떨어질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다. 작년에 70억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기름값으로 치른 우리로서도 한숨 돌린 일이다.

▼앞으로의 기름값에대해서는 그러나 두가지 주장이 맞서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야마니석유상은 이대로 간다면 석유수출국기구(오페크)가 90년대초에 무너질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영국의 에너지경제학자 피터·오델은 한술더떠서 80년대말에 국제기름시장이 무너질것이라고 예언하고있다. 70년대에는 상상도 못했던「주객전도」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기름값의 위세가 꺾인 것은 선진공업국들의 기름소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3개회원국서는 80년에 에너지소비가 3·2%, 다시81년엔 3%가 떨어졌다. 기름소비는 너무 떨어져서 80년에 8%, 81년엔 7%가 줄었다. 그래서 오페크 각국의 기름생산도 시설용량의 절반밖에 안될만큼 줄어들고 있는 판이다.

▼선진국의 기름소비가 줄어든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불경기에다 기름값이 비싸 소비가 줄고, 석탄같은 딴 연료소비를 늘리며 에너지절약정책이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70년대초의 에너지예측과 비교한다면 적어도 25%의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졌다고 분석되고 있다. 단위 국내총생산(GDP)에 쓴 에너지가 73년에서 80년사이에 13%, 기름은 20%나 떨어졌다.

▼선진공업국들은 73년만해도 수입해온 기름에 대한 의존도가 전체 에너지소비의 35%나 됐었다. 그러나 이제는 3분의1이 못되고있다. 앞으로 85년에는 28·6%, 90년에는 23%, 20세기말에는 14%로 떨어질것이라고 국제에너지처(IEA)는 보고있다. 이때까지 발전소에서 기름을 때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게 IEA의 목표다. 그러나 날씨변덕은 아무도 예측할수 없다.

▼미국의 석유재벌 엑슨의 회장 클리프튼·가빈은 82년이 지나면 기름값이 서서히 오를것이라고 보고있다. 아메리카은행은 80년대말에 1배럴당 1백달러가 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알·파이잘 사우디외상도 경기가 풀리면 기름값이 오를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지금이야말로 에너지절약과 산업구조개편, 그리고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해 뛰어야 될때다. 한치앞을 내라보고 허리띠를 푸는 일이 있어선 안될것이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생명보험
●연금제도
●교육보험
●그룹보험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R. R. S. P
922-3111 (B)
791-8196 (R)

한국일보

533—2361~4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 Drive in Hamberg Shop.
주매상 : $13,000 바쁜 네거리에 있음.
가격 : $385,000

* Donuts Shop
주매상 : $4000.5,000.6,000.6500

* Variety Store
주매상 : $6000.5,000.4,500.4,000

★Shopping Centre
①Breadman과Health food Store
주매상 : $5,000 전망밝은 지역.
가격 : $229,000
②Gift 와Hobby Store
년매상 : $170,000
가격 : $80,000
③Television, 전축
년매상 : $300,000
가격 : $35,000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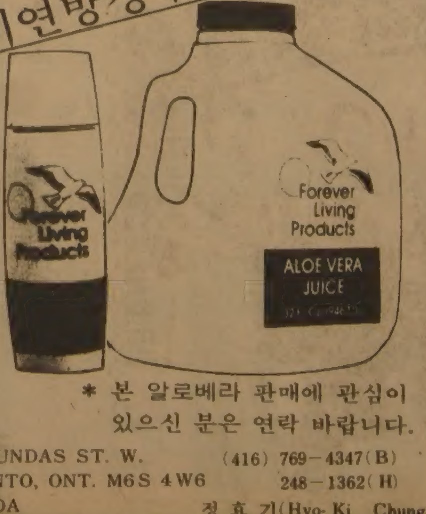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상륙!
미연방정부 특허품

★다른 약으로 별 효험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회사 제품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쥬-스 : 위궤양·소화불량·장염·변비·당뇨병·고혈압·저혈압·풍으로 인한 신경마비·빈혈·담석증·뇨석증·관절염·신경통·월경통·천식·알레르기성체질·전신쇠약과 식욕부진, 기타 많은 좋은 효과 있음.

●젤리(가정상비약) : 화상·외상·치질·입술부르튼데·습진·여드름·무좀·벌레 물린데·두드러기·피부암·햇볕에 탄데·정맥류·알러지·대머리·잇몸앓이·부인과질환·동상·임신으로 배가 튼곳 등외.

●힐 로숀 : 신경통·관절통·근육통·두통·타박상 발 삔데 등.


Forever Living Products
ALOE VERA JUICE

* 본 알로베라 판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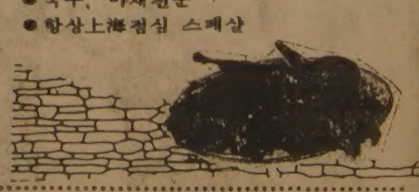
4020 DUNDAS ST. W.
TORONTO, ONT. M6S 4W6
CANADA
(416) 769—4347(B)
248—1362(H)
정효기(Hyo-Ki Chung)

京華樓
(경화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現代史発掘 〈12〉

5·16革命에서 維新前夜까지

國家再建最高會議

기념사진 한장으로 뿔뿔이 헤어지며…

요란스럽고 숨막힐듯한 出帆에비하면 掉尾의 장식이 너무나 조촐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民政移讓을 하루 앞둔 63년12월16일 소리없이 해체되었다. 이날하오2시 최고회의 廳舍(현 경제기획원) 앞뜰에서 거행된 해체식은 20분만에 간소하게 끝났다.

終務式같은이날式에는 朴正熙의장、李周一부의장、趙鎭滿대법원장、金顯哲내각수반을 비롯한 각료들、그리고 現前職 최고의원들이 참석했다.

空軍군악대의 奏樂속에 8층건물 屋上에 계양되었던 最高會議旗는 스스로 내려졌다. 그 旗는 1千日 가까운 軍政기간중 권력의 핵심이요、정책의 産室이자 3權의 총본산으로 군림해온 최고회의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이旗의 下降은 곧 軍政의 종식을 의미한다. 실로 5·16 擧事후 9백45일만이고 최고회의가 발족된지 9백42일만에 문을 닫게 된것이다.

한 정권의 壽命으로 볼 때에는그다지 긴 것이 못되지만 憲政을 중단시킨 軍의 과도정부로 따질 때에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

이미 5代 대통령에 당선된 朴正熙의장은 이날 감회어린 致辭를 했다.

『…오늘로서 파란과 격동의 5월혁명은 일단 매듭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5월의 구국혁명이 그 역사적 사명을 완결한 것은아니다. 5월혁명이 민족과 국가에 제기한 제반 命題가 기어이 결실을보는 그 순간까지 추구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黃鍾甲총무처장은 폐회식 벽두 혁명정부의 2년7개월에 걸친 경과를 보고하고 업적사항을 소개했다.

그동안 최고회의는 「충분한 대화」가 「비생산적인 토론」으로 매도되던 시절이라 一瀉千里로 진행된 「능률적인 速決」은 拙速을 면치못하는 흠도 있었다. 그런대로 혁명공약 6개항중에서 제1항(反共을 國是의 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과 제2항(유엔憲章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은 그런대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그밖의 4개공약은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패와 舊惡의 一掃및 청신한 기풍의 진작(3장)、民生苦의 해결과 국가자주경제의 재건(4장)、그리고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5항)등은未決과 試行錯誤를 거듭했다.

하지만 가장큰 문제는 제6항(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의 不履行.

대거 군복을 벗고 民政에 참여한 혁명주체들에겐 아픈 약점(공약위반)이 아닐수 없었다.

立法기능과관련、최고회의는 量的인면에서 기록(?)을 세웠다. 2년7개월동안 총 1천5백67건의 法令을 제정、정비 또는 개정했다.

이는 건국후 5·16까지 과거 13년간 국회가 다룬 立法실적에 버금가는 숫자였다. 한마디로 法令의 무더기 量産이었다. 혁명초기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정치활동淨化法」에서 부터 末期의 제3공화국헌법、정당법、선거법등에 이르기 까지하루 한、두건씩의 법률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3·15부정선거 혐의로 由黨정권의 律士들은 날로 바뀌어 지는 法질서의 흐름을 알고자 「最高會議 새法令集」을 차입받아 차례로 閱讀했다(任哲鎬씨의 述懷). 내용의 충실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과거 大韓帝國의 舊法令을 비롯하여 日帝시절및 美軍政때의 옛 法令들을 말끔히 정비、이른바 六法體制를 갖춘것은 그런대로 최고회의의 실적으로 꼽힌다.

사실 최고회의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陣痛과 內燃을 치렀다. 혁명主役들에 대한 사상적 성분에 관한 友邦 美國의 의구심을 의식한 朴의장은 擧事 사흘만인 5월18일에 「容共分子의 체포」를 메모로 지시했고 잇달아 「指導者道」란 조그마한 책자를 발간했다. 거기서 朴의장이 내세운 것은 「행정적 민주주의」、「계획성있는 자유경제」등이었다. 이런 지도이념에 관한 정치학적、철학적인 이론 뒷받침이 구축되기도 전에 군사정부는 이른바 「민족적민주주의」를 제창하여 混線을 빚기도 했다.

최고회의의 초기시절 한간에는 「朴코프」「金스키」「柳코얀」등 은어가 떠돌았다. 혁명주역들의 이름을 소련식 이름에 빗대어 부른 별명이었고 사상적 의심이 곁들인 표현이었다. 이때문에 서울太平路 議事堂 뒤채에 진을 치고 있던 정치부기자들은 차례로 수사기관에 불려가 유언비어를 조작한 出處를 대라는등 추달을 받아야만 했었다. 마셜·그린 美대리大使、매그루더 유엔軍사령관등이 朴장군의 思想을 의심하는 낌새가 두드러짐과 때를 같이하여 최고회의의 廳舍와 나란히 선 유솜(한미경제협조처·현 美大使館) 廳舍에 美CIA요원들이 집결한 것같다는 말이 최고위원들의 입에서 새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容共分子의 색출강화」라는 朴장군의 단호한 反共시책을 목격하고서는 이를 의심하는 눈치와함께 새로운 [illegible]으로 혁명주체들을 대하는 [illegible].

深夜까지 일해온 최고회의는 軍政기간중 67차의 본회의(延1백78시간40분)와 2백74차의 常任위원회(延9백64시간30분)를 여는 기록을 수립했다. 이처럼 많은 회의를 여는 사이에 날로 새로운 정책수립과 立法이 거듭되었으나 시종 非公開로 진행됐기때문에 회의내용과 분위기를 알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특정인의 구속、깡패소탕、大學정비、언론기관의 정비、外來品 단속등 굵직굵직한 충격요법이 단행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기가 일쑤였다.

과거 民主黨시절의 公民權制限法을 그대로 답습한 政治活動淨化法은 「정치적 보복행위」란 빈축을 샀는데 최고회의측은 정치풍토의 쇄신이란점을 들어 불가피한 조치임을 역설했다.

당초 30명으로출발했던 최고회의는 여러차례 개편을 거듭하는 가운데 해체될때까지 31명이 물러 갔고 적을 때는 21명의 委員으로 진행했다.

최고위원들 대부분이 우여곡절끝에 民政에 참여했으나 17명은 公約대로 原隊복귀했으며 反革命사건등으로 囹圄의 몸이된 사람이 13명、軍에 돌아가거나 民政에 끼어들지도 않고 在野에 묻힌 사람도 13명이나 됐다. 따라서 자동케이스(各軍참모총장등)를 포함하여 최고위원의 權座에 앉았던 사람은 모두60명을 헤아린다. 예비역으로 있다가 5·16직후 現役에 다시 복귀한 사람은 金鍾泌(육군중령) 金東河(해병소장)兩씨.

국무회의보다 優位인 최고의결기관인 최고회의는 본회의와 常任委로 나뉘어 운영되는 가운데 권한상의 상호마찰이 더러 있었으나 그런대로 「운영의 妙」로써 이를 극복했었다. 양쪽 모두 非공개회의여서 자세한 모습은 알 수 없었으나 대체로 국회의 심의절차에 따랐으며 특별한 議決정족수를 요하는 예산안、人事문제、기타 중요한건은 본회의에서 다루었다. 그밖에 從多數로 의결할만한 일반안건이나 법률안 심의는 대개 常任委심의로 끝나는것이 관례였다. 매일 또는 隔日로 열린 常任委는 「본회의의 위임사항」이외의 것도 다루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후 2년8개월의 軍政기간중 3權을 장악、통치해오면서 功過와함께 숱한 試行錯誤를 빚기도했다. 사진은 63년12월16일 최고회의 解體式에서 朴正熙의장·李周一부의장(左)등이 참석인사들과 악수를 나누는모습.

◇현경제기획원 뜰에서 열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解體式광경.

"17명軍復歸 13명은 在野에 "公約안지켰다"일부 非難도

옆의 유솜廳舍에 "美要員들 집결" 說도

內閣과 7개分科委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常任委에 회부되는 법률안에는 민간인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의 의견이 큰입김처럼 반영되었다.

최고회의는 63년12월16일 막을내렸으나 실제로는 6개월가량 앞선 그해 봄 民政移讓스케줄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임무를 다한셈이었다. 朴의장의 2·18성명(대통령 不出馬) 2·27宣誓(民政不參) 3·16성명(軍政 4년연장) 4·8성명(조건부民政移讓)등 엎치락뒤치락식의 翻意로 政局은 혼란을거듭했다.

金鍾泌씨에 의해 주도된 共和黨사전조직의 비밀이 밝혀지고 최고위원들이 親金·反金라인으로 분열됐던 62년말부터 63년2월까지의 최고회의 분위기는 자못 살벌했다. 金鍾泌씨가 최고회의에 들를때나、최고위원들이 집단행동을 할때는 重武裝으로 경호했다.

5·16후부터 1년동안 최고위원들이 비교적 한눈을 팔지않고 열성적으로 일한반면 62년여름부터 新黨사전조직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술렁이기시작했다. 결국 사전조직 4大疑惑사건등으로 혁명주체들은 완전히 분열、內紛을 일으켰고 이같은 진통은 63년초부터 여름까지 절정을 이루었다.

장충동 議長公館에서 혁명주역들이 民政참여냐? 原隊복귀냐를 숙의하다가 누군가가 民政참여를 희망하는 「民意」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다가 무안을 당한일도 있었다. 茶菓를대접하던 陸英修여사가 公務수행에 앞장서지 않고 技巧를 부린다면 [illegible]과 다를바가 무엇인가고 한마디 던지자 座中이 얼굴을붉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아뭏든 찬술 한잔 나누지 못한채 기념사진 한장으로 뿔뿔이 헤어진 최고위원들은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회조차 없다. 다만 해마다 5·16기념식을 갖지않고 5·16민족상시상으로 대체해왔다. 【特別取材班】

蘇、SS20極東배치 是認

美·中共겨냥…日선 除去요구

【東京19日=聯】소련은 매우 위협적인 최신예 핵무기인 SS20중거리 핵미사일을 극동지역에 배치했음을 최근 공식으로 시인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일본 교오도(共同)통신의 모스크바발보도에 따르면 소련군참모부의 빅토르·스토라주보호소장은 극동에 배치된 SS20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공을 대상으로 삼은것이라고 밝혔다.

스토라주보호소장은 교오도통신과의 회견에서 『소련의 남쪽에있는 핵무장한 이웃(중공)과 미국의 핵무장항공모함、잠수함들이 군사적위협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위해 SS20미사일이 배치되있음을 시인했다.

【東京19日聯=聯】일본은 소련이 극동에 배치한 미사일을 제거해줄것을 요구했다고 사쿠라우찌·요시오(櫻內義雄)외상이 19일 밝혔다.

사쿠라우찌외상은 이날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이러한 日本정부의 요구가 지난달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실무회담에서 소련측에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美、4百億弗규모 컴퓨터武器開發중

議會、보고서지적

"이미舊型"…計劃취소促求

【워싱턴19日聯=聯】美국방성은 신무기나 커뮤니케이션체계에 쓸 컴퓨터를 새로마련하려고 4백억달러 규모의 계획을 세웠으나 이계획에 따라 제조될 컴퓨터는 이미 구형이어서 배치되기도전에 폐기처분되어야 할것이라고 한 의회보고서가 19일 밝혔다.

예산국이 제출한 이보고서는 1990년까지 4백억달러를들여 새로운컴퓨터를 배치한다는 국방성의 계획은 고장이잦은 구형의 컴퓨터를 생산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하고 국방성은 이계획을 취소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5면

나이지리아 쿠데타未遂

【라고스19日AP=聯】나이지리아보안당국은 최근 현민간정부를 전복하고 군부의재집권을 노리려던 군사쿠데타를 모의단계에서 적발、이에 관련된 민간인1명과 수명의군인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집무실은 이날 공식발표를 통해 보안당국이지난 6일 실업인 알하지·부카르·만다라씨및 장교1명과 사병수명등을 군부반란교사혐의로 체포、현재 심문중이라고 말했다.

비키니 太子妃사진 두英紙 社說로謝過

【런던19日聯=聯】임신중인 다이애너 황태자비의 비키니 사진을 1면에 게재、물의를 빚었던 영국의 두 신문들은 19일 버킹검궁에 정중히 사과했다.

선紙는 이날 1면에 말썽이 됐던 다이애너 황태자비의 수영복차림 사진을 다시 싣고 그옆에 사과문을 게재、『황태자비의 사생활을 침해하려던 의도는결코 없었으나 만약 결과가 그렇게 됐다면 대단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日、美에 百億弗차관 제의

【워싱턴19日聯=聯】미국과의 무역긴장완화에 고심해온 일본기업인들은 대경제회복을 위해 1백억달러규모의 차관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미주지사협회 대변인이 19일 밝혔다.

이대변인은 일기업의 대미경제원조계획이 오는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주지사협회 모임에서 공식으로 공개될것이라고 밝히고 이계획속에 미50개주의 재정공공사업과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기위한 일본민간부문의 저금리차관제공이 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번 대미원조제의는 미일무역역조를 시정하라는 압력을 완화시키는 한편 미국인의 대일본관을 개선하기위해 마련된것으로 미주지사협회는 보고있다.

엘살바도르 左翼 버스 7臺爆破

【산살바도르19日聯=聯】엘살바도르좌익게릴라들은 1주일이상의 소강상태를 깨고 18일밤 수도 산살바도르에서 공격활동을 재개、7대의버스를 폭파했다고 한군대변인이 밝혔다.

海外토픽

辭典겸 손목시계

★日、英語단어千6百개수록

영어사전구실까지 겸한 손목시계가 19일 日本 東京의 카시오컴퓨터회사가 시장에 선을 보였다.

카시오가 개발한 이『워킹·딕셔너리』(왼쪽 사진)는 1천6백66개의 영어기본단어및 숙어에다 불규칙동사의 활용형까지 말려준다는 것. 【東京AP=聯】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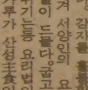
건강을 지켜줄 공해 없는 식품-. 그래서 자연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간다. 되도록 인공식품은 멀리하려 한다. 흰쌀밥보다 현미나 보리를 권하는 소리가 높다. 감자도 건강식의 하나로 꼽히는것 같다.

입맛은 세월과 나이에 따라 변하지만 그리쉽게 바뀌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쌀偏食은 대단하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로는 지난 80년 전체곡물 소비량중 쌀이 67.8%나 차지했다고 한다. 10년간 쌀소비는 꾸준히 늘어났고 보리는 오히려 3분의1로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肉類섭취도 많이 늘었다. 쇠고기는 20년전에 비해 5.2배나 더먹고、돼지·닭고기도 2.7~3.4배로 소비량이 커졌다. 가축이 소비하는 사료는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식량증산도 급하지만 이런 食性으론 「主穀의 自給」이란 꿈은 좀체 실현하기 어려울듯 하다. 농수산부가 새삼 감자를 主食化하고 올부터 收買를 하겠다는 방침은 식량자급의 어려운 한단면을 말해 주는것이다.

감자의 主食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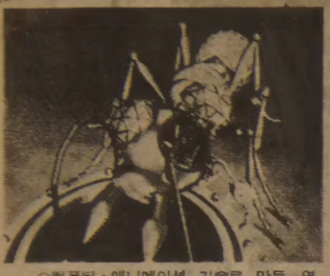


감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인것은 1820년 조선純祖때다. 간도에서 두만강을 넘어 그 씨가 들어왔다고 한다. 주로 함경도와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된다. 高冷지대 산물로 그 원산지가 남미 안데스산맥으로 알려졌다.

잉카족의 원산물을 16세기 스페인원정군이 얻어다 유럽에 퍼뜨렸다. 고흐의 명화 「감자를 먹는 사람들」은 1885년 작품으로 당시 서양인들의 주식생활을 엿보게 한다.

세계의 주요 감자생산지는 유럽이다. 대체로 소련、폴란드、독일、미국、프랑스、영국등의 순위로 그 생산량이 많다. 감자를 훌륭한 식품으로여겨 서양인의 요리엔 빠지는 일이 드물다. 굽고삶아 으깨고 튀기는등 요리법이 20여가지에 이른다. 쌀·밀가루가 산성主食인데 비해 감자는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다. 식품으로만이 아니고 工業原料·약용등 용도가 넓다.

쌀밥도 좋지만 감자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한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어떻게 입맛에 맞추는가에 달렸다. 요리법이 여러가지 개발되면 증산은 저절로 따라 올것이다. 감자소비를 크게 늘릴 요리전문가들의 솜씨에 기대를 걸어본다.



◇컴퓨터·애니메이션 기술로 만든 영화 더·워크스(The Works)의 로보트개미.

「自動車컴퓨터化」열띤 경쟁

핸들놓리면 경고·遵守사항 들려주고

엔진상태 조정·變速·오일交替등 自動작동

현대인의 발인 자동차에 컴퓨터가 깊숙이 이용되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운전하는 시대가 오고있다.

컴퓨터화한 자동차는 아직 운전대만은 조종하지못하지만 그외 모든 기능을 자동적으로 작동시킨다.

이미 미국의 자동차시장에는 운전중 자동으로·엔진상태가 조정되고 오일이 교체되며 자동변속이 되고 라디오주파수가 바뀌는 자동차가 나왔다.

앞으로 몇년내에는 이보다 더발전된 차들이 나온다.

각 자동차회사가 개발중인 컴퓨터화 자동차는 다음과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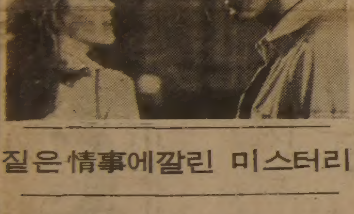
▲크라이슬러社=84년모델자동차에도 운전시 지켜야할 사항을 말로 들려주는 컴퓨터를 부착한다. 주의사항은 영어、스페인어、프랑스어、아랍어를 사용、『가스를 채워라』、『안전벨트를 매라』는등 8가지를 말한뒤 『감사합니다』며 끝낸다. 이회사관계자는 이 장치가 보통 라디오값과 비슷하면서 정확하고 예절바른 남성의 목소리로나오기 때문에 여성들에게인기가 있을것이라고 장담한다.

▲제너럴·모터즈社(GMI)=앞으로 시판할 델코(DELCO)모델은 운전자가 차를 불규칙하게몰 때 엔진이 저절로 꺼지는 장치를 부착한다. 장치값은 5백달러.

또 한눈을 팔아 자동차가 길옆으로 나가면 버저를 울려주고 브레이크를 눌러주는 장치도 부착할 예정이다.

▲다임러·벤츠社(독일)=물기있는 도로에서 바퀴가 헛돌지않는 장치를 고안했다. 짙은 안개로 운전이 어려울 경우 스크린을통해 자기차의 위치를 알수있도록 한다. 2년내 시판예정.

▲포드社=85년까지 컴퓨터차대반이 장치를 부착하여 소형차라도 대형차와 같은 안락감을 갖게한다. 도로의표면에 상관없이 일정한 안락함을 유지할수있다.



짙은 情事에깔린 미스터리

보디히트

돈과 욕정에 눈이먼 거부의 젊은 아내와 얼빠진 파계변호사의 사랑·음모를 그린 애정미스터리영화.

처음 30분간은 농도짙은 정사장면과 은어로 된 섹스대사가 끈끈하게 전개되다가 후반부터 범죄로 급선회하는 연출기법이 뛰어났다. 안개낀 밤、느리게 돌아가는 선풍기、땀으로 범벅이된 남녀의 행위、이런 것들이 다음에 전개될 음모를 암시하지만 놓치기 쉽다. 갑작스런 플러트의 방향전환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지리한 감이들고 꼬리를 너무 잡아 버렸다는(가위질 탓도 있겠지만) 느낌도 든다. 급전되는 라스트까지의 전개는 치밀한 연출력을 엿보게 한다. 「레이더스」「제국의 역습」의 시나리오를 맡았던 로런스·캐스던의 감독데뷔작으로 타임誌가 81년도 베스트투비 1위로 선정했다.

캐더린·터너、윌리엄·허트주연. 원제 Body heat (明寶상영중)

河吉鍾장학금 기탁 【봉】

故河吉鍾영화감독의 3주기를 맞아 유족과 친지 17명이 「河吉鍾장학기금」 2백만원을 모아 서울예술전문대학에 기탁했다.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80년도를 수놓은 정상미녀들 제6회 캐나다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왼쪽부터 안주영(웨너)·김진영(미)·허윤정(진)·손주라(선)·고보경(인기)양▮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출전자격 : 만17세~25세 미혼한인여성.

미녀 출전 신청마감 : 4월10일 하오5시

접 수 처 : 토론토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연락전화 : (416) 533-2361~4

진행과정 : 하오6 : 00~7 : 00—칵테일
" 7 : 00~8 : 00—디너(만찬)
" 8 : 00~10 : 00—미인대회
" 10 : 00~10 : 30—연예인쇼
" 10 : 30~11 : 00—심사발표및 시상
" 11 : 00~1 : 00—댄스파티

입 장 료 : $30.00

미녀들의 출전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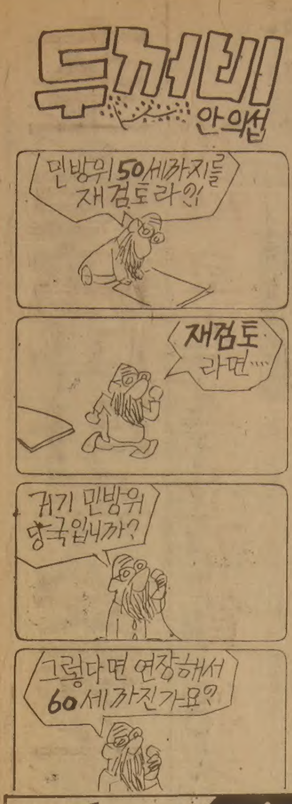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 「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주최 : 토론토지구한인회

후원 : 한 국 일 보 사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紅疫 소아마비

豫防접종 義務化

保社部 전염병豫防法 개정안 마련

비용전액 國家부담

農漁村 영세민 때놓쳐 病걸리기 일쑤

보사부는 현재 임의접종대상으로 돼있는 홍역과 소아마비를 전염병예방법상 정기접종대상에 포함시켜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다.

보사부는 20일 이를위해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인데 홍역과 소아마비가 의무적인 정기접종대상에 포함된경우 접종비용은 국가가 부담, 무료로 접종해주게된다. 보사부의 이같은 결정은 홍역과 소아마비가 영·유아들에게 일단 걸릴경우 평생불구가되는등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다 임의접종대상이어서 일부 농·어촌이나 영세민, 부모들의 무지등의 탓으로 제때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해진조치다.

현재 홍역은 일부영세민자녀를 제외하고는 개인병·의원에서는 물론 관할보건소에서 1회에 3~5천원씩의 자가부담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있다. 또 소아마비(폴리오)의 경우는 매년3~4월과 10~11월등 봄·가을 두차례에 걸쳐 각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접종대상인 1세미만 또는 5~6세미만 어린이의 경우 부모들의 무지 또는 실수로 인한 미접종도 있으며 또 소아마비의 예방접종이 연중계속사업이 아니어서 일부 가정에서는 접종시기를 놓칠경우 개인병·의원을 찾게해 유료접종을 해주고있다.

특히 홍역의 경우 단1회접종으로 평생예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접종후에도 발병하는예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정기예방접종대상(제1종)질병은 제1종전염병으로▲콜레라▲장티푸스▲디프테리아▲두창, 제2종전염병으로▲백일해▲파상풍, 제3종전염병으로 결핵등 모두 7가지를 지정하고있다.

보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이가운데 콜레라와 장티푸스는 수인성전염병으로 무조건적인 매년정기접종방식보다는 발생지역과시기에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임시집중접종 방식으로 전환키로하고 이2개질병을 정기접종대상에서 제외시키는대신 영·유아보호 기초예방접종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소아마비와 홍역을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역과 소아마비접종 대상은 매년80여만명선으로 현재 국내에서 예방백신의 대량생산공급이 가능한 소아마비는 별문제가 없으나 年間1억원 상당의 별도 예산뒷받침이 필요한 홍역에 대해서는 예산당국에서 난색을 표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보사부는 정기접종대상질병에「홍역」으로 구체적병명을 명시하는대신「기타보사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으로 포괄적규정을 해놓는 개정안도 함께마련, 추진하고있다.

보사부당국은 법개정작업과는 별도로 예산뒷받침에맞춰 홍역백신의 대량생산공급체계를 마련하고 무료접종대상을 내년부터는 크게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늦어도83년부터는 전체대상자에 대한 접종의무화와 무료접종이 실시될것이라고 말했다. 【兪錫錦기자】

◇初·中·高 신나는 봄방학 전국 초·중·고교가 20일 일제히 봄방학에 들어갔다. 각급학교는 이날 종업식을 갖고 학생들에게 성적 통지표를 교부했는데 개학은 3월2일.

國立大교수들 초조한 나날

25일 再任用 脫落걱정

서울大등 전국 千8백여명 심사對象

요즘국립대학의 많은 교수들이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있다.

오는 25일로판가름이 날「교수재임용」판정에 따라 일부교수들이 캠퍼스를 떠나게될는지도 모르기때문이다.

그래서 재임용 대상에오른 많은 교수들은『혹시나 내가 재임용탈락대상에 끼는것이 아닌가』하고 걱정하면서 대학당국등에 재임용심사결과를 수소문하는등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것.

국립대학교수들이 유독 이번의「재임용」에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것은 지난76년도입된「교수재임용제」의 6년임용기간이 끝나 전반적으로 재임용을 받아야 하기때문이다.

대학교수의 무사안일주의를 불식하고 확고한국가관과 교육관을가진 교육자상을 정립한다는 취지에서 지난76년에 처음실시된 이제도는 정·부교수는 6년마다, 조교수는 3년마다, 전임강사는 2년마다 임명권자로부터 임용을 다시받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정·부교수들의 대부분이 올해가 그 두번째 재임용시기가 된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재임용대상교수는 서울大의 경우 ▲정교수 2백43명▲부교수 9명▲조교수 33명▲전임강사 11명등 2백96명으로 서울大전체교수의 27·3%에 해당한다.

기타 국립대학의 경우도▲정교수 6백19명 ▲부교수1백43명 ▲조교수 7백56명등 서울大를 포함 전체국립대학의 해당교수는 1천8백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大경우 지난18일 대학인사위원회를열어 자체 심사를한뒤 적격자명단을 문교부에보냈고 문교부는 오는25일 재임용 교수를 확정하게된다는것.

한편 서울大의 한관계자는『정기재임용시기 이기때문에 대상자가 많을뿐』이라고 전제하면서『과거와 같이 재임용제가 악용되는 일은 없을것이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재임용제가 첫 실시됐던 지난76년도에는 전국 대학에서 모두1백81명이 재임용에서 탈락됐는데 이중 정치성향이 문제가됐던 교수는 31명이였던것으로 알려졌었다.

結婚자금궁한 20代 노상強盜 미수

20일상오11시께 서울江東區千戶2洞385 주택가골목길에서 沈良燮씨(26·江東區城內洞178의7)가 徐吉子씨(41·여·江東區千戶2洞385의1)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자기앞수표10장(4백40만원)이든 徐씨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나다 뒤쫓아온 행인들에게 붙잡혔다.

沈씨는 徐씨가 조흥은행千戶2洞지점에서 수표를 찾아나오는것을 보고 뒤따르다 행인이없는 골목길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徐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인근주민 洪仁奎씨(27·상업·千戶2洞422의1)등 2명에게 붙잡혔다.

沈씨는 경찰에서 4년전부터 동거해온 金모씨와 결혼자금을 마련키위해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吸煙 꾸중들은후 女大生 투신自殺

19일 하오5시40분께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광장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辛보향양(21·江原 K大영어과1년)이 20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辛양은 이날 어머니 朴順子씨(46·광장아파트6棟)가 자신의 코트주머니에서 담배를 발견,『여자애가 무슨 담배를 피우느냐』고 꾸짖자 말없이 밖으로 나가 몸을 던졌다는것.

非情의 아버지 拘束

아들監禁 굶겨죽인뒤 暗埋葬

"손버릇 고친다"매질도… 할아버지가 告發

【大邱=聯】大邱지검 林然?검사는 19일 아들을 자기집 안방다락속에 가두어 굶겨죽인후 암매장한 李東鮮씨(43·大邱市西區坪里洞1139의99)를 유기 치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해2월초순 평소 손버릇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들承煥군(7)을 안방다락속에 가둔후 하루 한끼씩만 먹이고 심한 매질까지 해오다 承煥군이 높이1·5m의 다락에서 떨어져 오른쪽다리에 심한골절상을 입었는데도 계속가두어 방치했다는것.

李씨는 承煥군이 심한 동상과 영양실조로 다리골절로 2월중순께 숨지자 여행용가방에 시체를넣어 坪里동뒷산에 암매장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李씨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10일까지 경북 星州郡 月恒面에 살고있는 아버지 李모씨(37)를 찾아가 행패를부리며 돈을 요구, 참다못한 아버지 李씨가 아들을 大邱지검에 고발함으로써 뒤늦게밝혀졌다.

李씨는 慶北도내 모경찰서에서 형사로 근무하다 지난78년 사직했는데 그후 본부인과 이혼, 둘째부인과의 사이에서 承煥군을 낳았으며현재는 세째부인 金모여인(40)과 살고있다.

作業중失明한 勞動者한쪽눈 1천7백40만원 지급을判決

大邱고법 민사부

【大邱=聯】도시일용 노동자가 작업도중 한쪽눈을 실명했을경우 노동능력의 24%를 잃게된다는판결이나왔다.

大邱고법 민사3부(재판장 崔範鎬부장판사)는 20일 배현모씨(29·서울江南區牛眠洞492의5)일가족3명이 무궁화식품(대표金泰雄·경북慶山郡)을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궁화식품은 裵씨일가족에게 1천7백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신체에 이상이 없는 노동자가 한쪽눈을 상실했을 경우 전노동능력의 24%가량이 상실된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裵씨는 지난80년서울 무궁화식품 저온창고에서 송풍기를 고치던중이 회사직원 김창수씨가 전원스위치를 넣는 바람에 송풍기날개에 눈을 찔려 실명했었다.

ROTC 任官式 大統領賞 崔在鴻소위

82년도 서울·경기·강원지구 ROTC(예비역육군장교후보생) ○○○명의임관식이 20일상오10시 서울文武대 연병장에서 劉彰順국무총리와 周永福국방장관, 尹誠敏합참의장, 李奎浩교장관, 3군참모총장들 내빈과 가족들의 축하속에 거행되었다.

육군소위로 임관한 이들신임장교들은 앞으로 병과교육을 받은다음 전후방 각급부대에 배치돼 초급지휘관으로 활약하게된다.

이날 임관식에서 상을받은 신임장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상=崔在鴻소위(24·成大)▲총리상=朴太〃(23·東亞大)▲국방장관상=成演基〃(23·光云工大)▲육참총장상=孔仁燮〃(23·서울大)▲행정학교장상=金宗植〃(24·國民大)

◇劉국무총리 致辭격려 劉총리가 수석임관 崔在鴻소위를 격려하고 있다。

署별로 專擔班

취업·分讓사기·서민喝取등

被告訴人 즉각連行

서울시경은 20일 날로 수법이 지능화하고 악랄해지는 각종 서민침해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기위해 경찰서별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李海?시경국장은 이날 상가나 빌딩또는 연립주택분양사기등 서민상대의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이같은 서민생활침해사범일제소탕령을 내리고 범인들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할것을 지시했다.

범인 신병의 신속확보지시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소인에게 3차례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처리하는동안 지능적인 범인들이 이같은 헛점을 악용, 도주하는일이 많기때문이다.

不倫남녀 被殺

驛대합실서 30代 흉기에

【太白=聯】20일새벽 4시5분께 강원도 太白市 黃池3洞 黃池역 대합실에서 30대청년이 불륜의관계를 맺고있는 辛永萬씨(29·太白市黃池2洞 3통2반) 黃金順여인(28·旌善郡 新東邑 ?洞11의4)등과 말다툼을 벌이다 갖고있던 흉기로 이들을 찔러 숨지게하고 달아났다.

목격자 金出伊씨(44·太白市黃池2洞 3통1반)에 따르면 이날새벽 4시39분발서울행 보통열차를타기위해 黃池역에 나왔었는데 대합실에서 30대청년과 辛씨등이 말다툼을 벌이다 30대청년이 갑자기 흉기로 이들을찔러 辛씨는 그자리에서 숨졌고 黃여인은 장성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는것.

경찰은 黃여인의 남편 趙모씨(37)가 1개월전에 교도소에서 출감한 사실과 黃여인이 趙씨가 수감중 黃池에서 辛씨등과 사귀고있었던 사실을 밝혀내고 이사건을치정에의한 살인으로 판단, 趙씨를 찾는한편 인근 불량배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野山서 20代처녀 목졸려 숨져

【平澤=聯】20일상오9시께 경기도華城郡 楊甘面 古今里야산에서 한흥목장주인 韓相錄씨(59·平澤郡靑北面玄谷里山64)의 3녀 善熙양(22)이 목졸려 숨져있는것을 같은마을 강준희씨(4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마을주민들은 韓양이 19일밤 집에돌아오지않아 아버지 韓씨와같이 韓양을 찾아나섰다가 숨진 韓양을발견했다.

경찰은 韓양이 19일밤8시께 집에서 1km쯤 떨어진 큰길에서 버스를 내려 귀가중인것을 보았다는 주민들의진술과 韓양이 심하게 반항한흔적이 있는점으로보아 범인이 韓양을 욕뵈려 야산으로 끌고갔으나 반항으로 욕심을 채우지못하고 목졸라살해한뒤 달아난것으로보고 주변불량배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前濟州敎大학장 變死

실족·被殺여부搜査

【濟州=聯】19일하오7시께 제주도 西歸浦市 月坪洞해안 속칭 머내바닷가 높이20m의 낭떠러지 밑에 前濟州교육대학장 金文奎씨(64·西歸浦市西歸浦洞695)가 숨져있는것을 姜경훈씨(22·月坪洞46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姜씨에 따르면 이날 머내 바닷가 낭떠러지 윗길을 혼자 산책하던중 20m 아래에 사람이 누워있는것을 발견, 내려가보니 金씨는 두개골이 파열된채 피투성이가되어 숨져 있었다는 것.

경찰은 고향이 月坪리인金씨가 이곳을 자주산책했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산책중 실족, 추락했거나 피살된 것으로보고 숨진 金씨를 부검하기로 했다.

숨진 金씨는 지난75년초부터 76년말까지 濟州교육대학장을 역임한후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화, 영화, 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방콕 金日成思想展 泰경찰이막아 失敗

人民軍協奏도 망신

【방콕19日=聯】北傀는 최근 東南아시아 침투의 일환으로 방콕에서 그들의 人民軍 협주단공연과 金日成사상선전전시회등을 가졌으나 현지언론의 무관심과 관계당국의 냉담한 반응및 비협조로 망신만 당하고 있다.

人民軍협주단은 여론의무관심과 관중동원의 실패로오는 28일까지로 되어있던 당초 공연일정을 2주일앞당겨 지난16일 공연을 끝냈다.

이곳 일간내오나紙는 北傀공연단의 하루 관중동원수는 전체좌석의 5분의1정도인 2백명내외에 불과해 1백명으로 구성된 공연단의 하루 숙식비는 3천5백달러인데 비해 하루수익금은 1백달러 미만이었다고 보도했다.

구독신청
533-2361

표주박

投宿客 숨지자 쓰레기場에 無許하숙집 女주인등 令狀

○…서울南大門경찰서는 21일 연고가없는 투숙객이 숨지자 길거리에 내다버린 무허가 하숙집주인 崔粉順씨(51·여·서울中區南大門路5街311)와 崔씨의 동생 崔用基씨(39)등 2명을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崔씨는 지난17일 상오7시께 자신의 무허가하숙에 투숙했던 安鉦씨(48·주거부정)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 동생과함께 시체를 끌어내 길에서 70m떨어진 쓰레기 하치장에 버렸다는것.

○…경찰에서 崔씨는『하숙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시체를 내다 버렸다』고 말했는데 숨진安씨는검안결과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내달부터 週末열차

京釜·湖南등 5路線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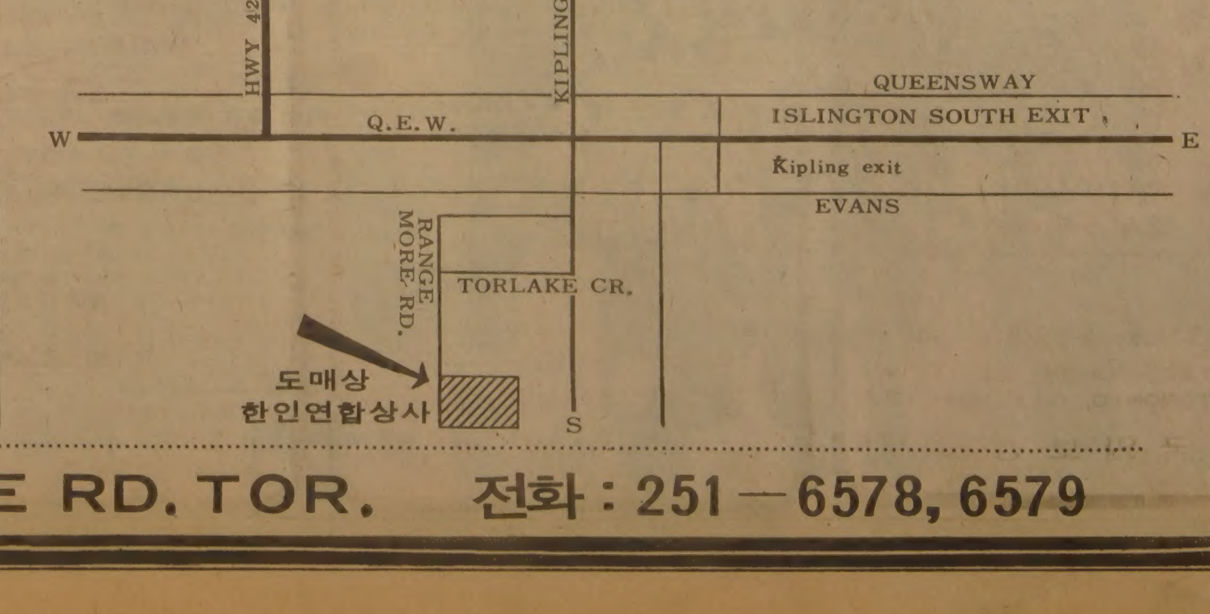
철도청은오는 3월1일부터 京釜·湖南·中央線등 5개노선에 12개의 주말열차를 운행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늘어나는 승객을 수용하기 위해 운행되는 이 열차는 특급으로 ▲서울~釜山 ▲서울~大田 ▲서울~麗水 ▲淸凉里~安東 ▲서울~光州 ▲서울~長項간을 각각 1왕복운행한다.

"소문없이 싸게팔며 봉사하는 도매상"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한인연합상사

꼭 한번 와보세요



27 RANGEMORE RD. TOR. 전화 : 251 — 6578, 6579

女子短縮마라톤 安春子 한국新

10km 코스 종전記錄 38초8 앞당겨

1차장거리 公認기록회

금년도 육상시즌을 여는 1차 장거리 공인기록회가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앞을 출발, 방송공사 앞에 골인하는 10km 코스서 열려 여자부서 安春子(산업기지)는 35분44초를 마크, 79년 文基淑(조폐공사)이 세운 한국최고기록 36분22초8을 38초8 을단축하고 한국 최고기록을 세웠다.

초반부터 선두그룹을 달리던 安春子는 4km지점을 지나면서부터 단독선두에 나서 여유있게 우승했다.

산업기지소속의 崔慶子는 柳仙美(일신여고) 李명오(경북체육고)등과 치열한 열전을 벌인끝에 38분08초로 2위를 차지했다.

한편 남고부서는 李康植(대헌공고)이 골인을 앞두고도 예측할수없는 혼전끝에 31분17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1위부터 4위까지의 기록차는 불과 7초밖에 되지않는 레드·히트였다.

◇기록

▲여자부=①안춘자(산업기지)35분44초②최경자(산업기지)38분05초③유선미(일신여고)38분22초④이명오(경북체)38분23초⑤김옥경(산업기지)38분58초⑥구혜숙(고려중)39분09초

▲남고부=①이강식(대헌공)31분17초②최종수(대헌공)31분20초③전남일(전주상)31분22초④김영길(영남고)31분24초⑤차한식(숭문고)32분07초⑥원종대(부천고)32분18초

◇安春子 한국新수립의 순간 35분44초로 한국 최고 기록을 수립한 安春子가 선두로 골인하고 있다.

亞洲도시대항籠球 서울市등6팀참가

【홍콩19日AP=聯】제1회아시아도시간 농구선수권대회가 오는3월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韓國의 서울시를 비롯한 아시아6개국도시가 참가한 가운데 홍콩에서 개최된다고 19일 발표됐다. 이번대회에서는 韓國과 中共(上海市)이 패권을 놓고 각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리핀(마닐라시)이 다크호스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KO敗후 의식불명 比권투선수 숨져

【마닐라19日AP=聯】필리핀의 프로복서 놀리·비·오소리오(21)는 지난13일 마닐라북부 팔가시난에서 벌어진 이그메 페로난도와의 8회 논타이틀경기에서 5회KO 패당한뒤 의식을 회복하지못하고 사망했다고 마닐라 불리틴이 19일 보도했다.

오소리오는 5회에서 페로난도의 라이트 스트레이트를 2차례맞고 링가운데에서 쓰러진뒤 의식을 잃었다.

中共 유고에 大勝 네루골드컵축구

【캘커타19日AP=聯】中共은 19일 이곳에서 속개된 제1회 네루골드컵국제축구대회에서 유고를 3-0으로 제압, 1승1무를 기록했다.

◇중 공 3(3-0 0-0)0 유 고
(1승1무) (2패)

朴載赫 대회전도 霸權

龍平스키폐막 江陵商 魚偶淵 유망주로부상

【龍平=李嘉洪기자】朴載赫(강릉농공)은 20일 龍平스키장에서 막을 내린 제63회 동계체전스키대회、대회전(1천8백m)에서 1분16초41로 우승、활강에 이어 고등부 2관왕이 됐다.

활강、회전、대회전등 3개종목 성적을 종합한 신복합 순위에서 고등부 1위는 5.02점을 올린 江陵商 1년생 魚偶淵이 차지해 유망주로 부각됐다.

◇최종일 기록 (종목별1위)

◇노르딕 ▲남일반(30km)=尹昌善(서울대OB)2시간10분14초 ▲남대부(〃)=鄭慶燮(동국대)1시간24분17초 ▲남고부(〃)=趙成敏(강릉농공)1시간24분4초 ▲여일반(10km)=魚順玉(인천시)41분59초 ▲여대부(〃)=金錦蘭(숙명여대)43분33초 ▲여고부(〃)=崔喆洵(영동)35분33초

◇알파인대회전 ▲남대부(1천800m)=朴炳燮(경희대)1분16초88 ▲남고부(〃)=朴載赫(강릉농상고)1분16초41 ▲남일반(〃)=韓相樸(사자림)1분34초61 ▲여자부(1、200m)=金振姬(단국대)1분12초78 ▲여고부(〃)=李銀子(영동)1분16초38 ▲여일반(〃)=金영지(이대병원OB)2분47초12

◇동신복합 ▲남일반=李延吉 1.27점 ▲남대부=南元基 17.48점 ▲남고부=魚偶淵 5.02점 ▲여대부=朴明淑 0.37점 ▲여고부=全淑禧 12.09점

한국、日에完敗 亞洲테니스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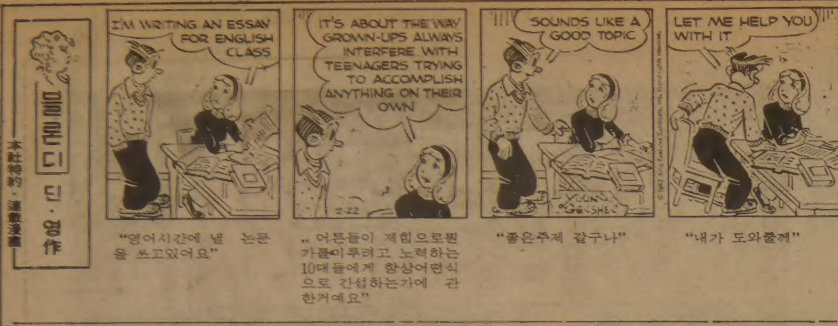
【쿠알라룸푸르19日韓=聯】韓國은 19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거행된 아시아국가대항 테니스대회 준결승전에서 日本에 3-0으로 패배、아깝게 탈락했다.

이날 첫단식에서 金春浩는 日本의 시라이시·쇼조에게 1-2로 역전패했으며 全瑛大역시 후꾸이·쓰요시에 0-2로 지고 말았다.

金春浩 1(7-5 1-6 1-3)2 시라이시
全瑛大 0(1-6 4-6)2 후꾸이
金春浩·全瑛大 1(3-6 6-2 4-6)2 요네자와·시라또

「산울림」리사이틀

친형제트리오그룹「산울림」이 오는27~28일 서울문화체육관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77년「아니 벌써」로 데뷔한「산울림」은 형제들의 군복무로 한동안 헤어져있다가 지난해 재결합、대오를 가다듬었는데 리사이틀을 통해 새모습을 보여주겠다고、사회자와 게스트없이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신곡「청춘」을 비롯해 「빨간풍선」「개구장이」「산할아버지」등 30여곡을 부를 예정.



"영어시간에 낼 논문을 쓰고있어요" "어른들이 제힘으로뭔가를이루려고 노력하는 10대들에게 항상어떤식으로 간섭하는가에 관한거예요" "좋은주제 같구나" "내가 도와줄께"

조규혁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星武꺾고 2년만에

綜合탁구 女子部 KAL·託銀A 準決에

大宇,고전끝에 優勝

◇渾身의 드라이브 大宇중공업과 星武의 남자단체 결승서 大宇의 孫城淳이 드라이브 공격을 하고있다.

혈전4시간30분。마지막단식에나선 大宇重工業의노장 孫城淳의 탁구가 힘차게 星武의 마지막보루 林海東의 옆구리를 파고 들었다。사력을 다한 大宇重工業 노장들의분투는 헛되지 않았다。孫城淳 池龍玉 그리고 실업초년의신예 金泰秀를 주축으로한 大宇는 星武의막판 맹추격을5-4로 힘겹게 뿌리치고 2년만에 전국종합 탁구선수권대회 남자단체전 패권을 차지했다.

20일 장충체육관서 속행된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 3일째 남자단체결승전에서 大宇는 왼손잡이 金泰秀의선전으로 9단식경기중 4단식을 선제、절대적인 승기를잡고서도 田英鎬를 선봉으로한 星武의 반격에 4-4의 타이를 허용、마지막 9차단식에서 코치를 겸한 孫城淳이 星武의 林海東을 21-18、21-14로 제압、토틀 5-4의 승리를 거두었다.

大韓航空A팀과 信託銀行A팀은 여자단체 준결승에 선착했다.

◇제3일전적

▲남자 단체결승
大宇重工業 5-4 星武
孫城淳 2-1 李昌勳
金泰秀 2-1 林海東
池龍玉 2-1 田英鎬
金泰秀 2-0 李昌勳
孫城淳 0-2 田英鎬
池龍玉 0-2 林海東
金泰秀 0-2 田英鎬
池龍玉 1-2 李昌勳
孫城淳 2-0 林海東

▲여자예선A조순위=①제일모직A 4승1패 ②한일은A 4승1패(승자승) ③대한항공B 3승2패 ④명지여고 2승3패 ⑤광주은A 1승4패 ⑥신일여상A 1승4패(승자승)

▲동B조=①제일모직B 6승 ②대한항공A 5승1패 ③동아건설 4승2패 ④신일여상B 3승3패 ⑤명지여고A 2승4패 ⑥광주은B 1승5패 ⑦문영여중 6패

▲동C조=①신탁은A 5승 ②산업은 3승2패 ③부산롯데B 3승3패 ④서울여상 2승3패 ⑤외환은B 2승3패(이상 승자승) ⑥신일여중 5패

▲동D조=①부산롯데A 6승 ②한일은B 4승2패 ③신탁은B 3승3패 ④선화여중 3승3패 ⑤외환은A 3승3패(이상 세트득실차) ⑥근화여고 2승4패 ⑦부산여상 6패

에콰도르 世界태권도大會 26일부터

한국등 54國서 參加

제5회 세계 태권도선수권대회가 南美의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24일부터 27일까지 벌어진다.

20일 현지 대회조직위원회에 의하면 이번 대회에는 태권도의종주국 한국을 포함、54개국의 6백여 임원·선수가 참가하며 6개국에서는 회의대표를 파견、사상최대규모의 대회가될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번대회는 에콰도르의 오스발도·허타도 대통령이 명예대회장직을 맡고있고 아로요IOC위원、헤르난데스NOC위원장이 대회운영에 직접참가하는등 에콰도르 체육행사사상 최대관심과 규모를 자랑하고있다.

한편 본대회에 앞서 23일에는 제5차 세계태권도연맹의 집행위원회및 총회가 열리며 본대회에는 각국 IOC및 NOC관계자들도 참가하게 된다.

새회장에 裵鍾烈씨 張柔道協會長 사임

張周鎬대한유도회 회장이 20일 사임했다.

張회장은 88년 서울올림픽과 86년 아시안게임에 대비、유도계의 비약적인 발전의계기가 되도록하기위해 사임한다고 사퇴이유를 밝히고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漢陽住宅 裵鍾烈사장(42)을 후임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말했다.

지난1월 대의원총회서 유도회는 회장의 유임문제나후임회장선출문제는 張周鎬회장에게 일임했기때문에 신임회장을 추대하기위한 임시대의원총회는 소집하지 않아도 된다.

◇裵鍾烈

鄭明和씨 26일 KBS교향악단과 協演

"성장한 나의音樂 들려 드리겠어요"

성원보내주는 男便에 감사 / 國內 젊은음악인養成 절실

話題

오랜만에 고국을 찾아온 첼리스트 鄭明和씨(38)가 달라진 서울거리를 분주히 오가고있다. 지난 15일하오 귀국한 鄭씨는 오는26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KBS교향악단과 협연을 하고 3월8일엔 햇불선교회를 위해 마련하는 자선독주회도 갖는다.

『國響이 KBS로 이관된후 협연하는 첫 연주자가 되어 기쁩니다. 그동안 성장한 나의 음악을 열심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귀국연주회에서는 4년전에 장만한 세계적名器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선보인다. 만들어진지 2세기반이나 지난 이악기는 구입가격이 우리돈으로 1억원을 넘는「문화재급」이다.

두딸의 어머니로서 어느새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원숙한 분위기가 전신에서 풍긴다.

『20대까지만해도 각종 경연대회와 콩쿠르에서 상을타고 경력을 쌓기위해 조급해 했지만 이제 음악과 더불어 살아온 세월이 30년을 넘고 보니 스스로 보다 완벽한 연주가가 되기위해 조용히 노력하고 있어요. 항상 무엇을 어떻게 연주할것인가가 머리속에서 맴돌고 있지요. 처의 연주가로서의 활동에 무제한의 자유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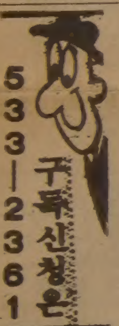
이번 귀국길에 모처럼 동행한 남편은 AP통신의 로마특파원인 具三悅씨―사건많은 도시에서 밤낮없이 뛰고있는 국제적 민완기자다. 서울연주에 앞서 19~23일까지 대만을 여행할때도 남편과 동행하게돼 마치 蜜月의 기분이다. 그는 그곳에서 대만교향악단과 협연한다.

『연주회가 끝나면 오는6월 京和(34) 明勳(29) 두동생과 함께 뉴욕 근교에서 열게될 여름음악캠프에 참가할 젊은 음악가들을 선정하는 일에 착수 하겠어요. 뉴욕에서 12km떨어진 전원의 小邑에 한 건물을 빌어서 마련할 이 음악캠프는 한국음악계의 발전을위해 젊은음악인의 양성이 급선무라고생각해온 우리3남매와 어머니(李元淑여사)의 꿈이 합쳐져서 마련된것이죠. 첼로7명、바이얼린10명、피아노8명 등 25명정도의 한국젊은이들만을 참여시킬 계획인데 왕복여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5주정도의 미국체재비및 숙식은 우리주최측이 부담하게됩니다』

鄭씨는 욕심같아서는 음악학교인 뮤직·컨서버토리로 육성하고 싶지만 3남매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말한다. 그녀자신은올해 40여회、바이얼리니스트인 京和씨는 1백여회、피아노와 지휘를 겸하는 明勳씨는 84년까지 연주스케줄이 꽉짜여있다고 덧붙인다.

『京和는 너무 바빠서 한곳에 붙어있을수도 없어요. 그는 놀랄만한 음식성과 뛰어난 테크닉으로 세계 최상급 바이얼리니스트로서 자리를 굳혔지요. 오는 4월 서울에서 LA교향악단을 지휘하게되는 明勳은 피아니스트보다 지휘자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어요. 東洋人 지휘자인 오자와·세이찌의 명성을 필적하는 젊은 지휘자로 음악계에서는 그의 성장을 주목하고 있지요. 12월에는 3남매가 2주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트리오연주회를 갖게됩니다』 【崔成子기자】

◇서울연주회를 위해 고국을 찾아온 鄭明和씨。고국의 젊은 음악가들을 위한 여름캠프의 준비작업에 바쁘다.



구독신청은 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42>

숨바꼭질 ㉙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짜아식 여전하구나』

일환이 얼굴에 찬탄과 연민이 엇갈렸다。

『뭐?』

『넌 어려서부터 그랬어。우리주제에 대한 그런 견해차이 때문에 딴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받곤했던거 넌 그걸주장했으니까。아뭏튼 부모라는 것에 대한 원섭이 가득찬 속에서 혼자서 부모를 두둔할수 있는 네 상상력이 부럽다』

『오빠 그건 상상이 아냐。내가 뭣엔지 정신이 팔려 식구를 잃어버렸을때 생각이 지금도 또렷이 나는걸。그때 날씨는 지금처럼 추웠고 길엔 온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면서 어디론지 가고있었어。그전까지는 부잣집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자란 외딸이었을거란건 내 상상인지 몰라도 내가 식구를 잃어버릴 때 일만은 바로 엊그제 일처럼 생생해。잊어버릴만하면 똑같은 꿈을 꾸어서라도 그걸 생생하게 간직하고있는 걸。고아가 된 건 순전히 내 잘못이었어』

『그래 넌 효녀다』

일환이가 조금도 빈정거리는투가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칭찬을 해주고 입을 다물었다。다시「오누이의 집」이 바라보이는 지점까지 오자 목이가 걸음을 멈추었다。

『오빠 우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거지?』

『이왕 여기까지 온김에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고가자。그래도 우리에겐 고향집이나 마찬가지니』

『빈 집이래두』

『빈 집이면 어때? 시간 있겠다、사가지고 온 먹을거 있겠다、천천히 놀다가도 나쁠거 없잖아』

『무시무시하던데』

일환이가 그럴수록 목이는 경계태세를 가다듬었다。

『내가 있는데 뭐가 무섭니?』

『그래도 싫어』

『바보처럼 굴고있네。내가 좋은거 보여줄게 들어가자』

『여기서 보여주면 안돼?』

『저 장속에 있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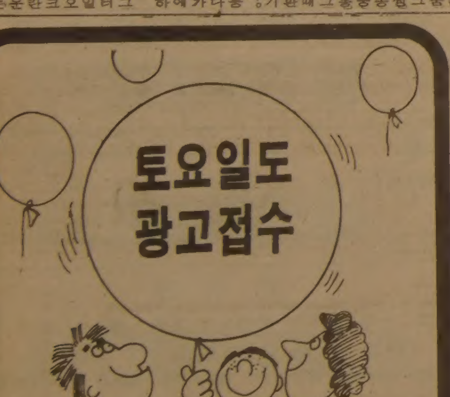
『저집은 이제 빈 집이래두。암것도 없어』

『그것만은 안없어졌을거야。그건 기둥이니까。식당 가운데기둥에 해마다 네 키를 재논 눈금이 있었지? 넌 그게 보고싶지않니?』

일환이 얼굴에 사람좋은 미소가 감도는걸 보자 목이의 도사렸던 마음도 쉽게 누그러졌다。목이는 어려서부터 키재기를 좋아했고 목이의 이런 응석을 받아들여 식당 가운데 기둥에다 해마다 목이의 키를 잰 눈금을 칼로 파서 남겨논건 일환이었다。

고아원 아이들이란 대단치 않은 것도 시샘을 하고 큰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그 가운데기둥도 짐짓하게 말썽을 부렸었다。딴 애들이 좋아 하필이면 그 가운데기둥에다 제 키를 새기려고 심통을 부렸고 목이는 한사코 그걸 제 기둥이라고 우겼기때문이다。그럴 때 항상 일환이가 목이 편이 돼서 그 기둥의 소유권을 보장해주었다。목이도 딴 아이들도 기둥이나 눈금을 소유할수 없다는걸 알고있었다。그러다가 각이 마음이 허전했기때문에 뗄가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려들었었다。

목이의 키를 재줄때도 그 목이 여성을 들어줄때의 일환이는 참으로 커보였다「오누이의 집」에서 제일 키크고 힘센 말썽이 자기편이란게 목이에게 얼마나 미더운 빽이었던지가 생각나 목이는 마음놓고 칭칭댔다。



오전10시부터
오후 5 시까지

☎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광고부

김인규회계사무소
개업안내

지난 7년 동안 해오던 회계업무를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아래장소에 1월1일부터 사무소를 개업하였읍니다.
Computer, Xerox등을 마련하여 편의를 도모코자 하오니 여러분의 사무실로 아시고 배전의 애호와 편달을 바랍니다.

ACCOUNTING OFF. I. K KIM, RIA
501 Yonge St. Suite 207(Yonge & College)
Toronto, Ont.
☎ : 960-5736(B) 844-0178(R)

약력 : 1964년 서울상대졸업
1975년 RCA RIA
1981년까지 12년간 카나다제조업체에 Accountant, Controller로 근무

1982년 1월 일

공인회계사
김인규 배

한국인 유일한
에코시 가구점
●최고품질의 차원 높은 가구
●친절봉사, 에프터 써비스
●특별염가

2300 YONGE ST.
(영×에그린톤 센타)
486-0397 김 만 구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몬트리얼 지국장 입니다.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 드립니다.
정 관 성
(514)672-8399(R)
(514)845-7151 EXT.343(B)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치과에서 일할 RECEPTIONIST 구함.
영어와 한국어를 할수 있어야함.
☎ : 535－2798 233－9454
781－9581(저녁)

경험있는 주말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 : 923－4354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 매니저 또는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식자기술 배우실분 구합니다.
☎ : 533－2364(미스. 박)

입주하셔서 두어린아이(2년, 1년) 보아주실분 구함. 직장부부.
☎266－0801, 751－3189

도너츠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Full Time)
☎531－2689

구 직

가게등 각종사업체 운영해드림. 수퍼마켓, 무역회사 부동산업 소유 운영했음. 캐나다에서 대학졸업 신원확실, 성실, 입주가능 ☎449－1913(오전11～2시)

매매및 양도

"꿀"팝니다(토종꿀과 로얄젤리)
30 DEWSON ST. (오싱톤×칼리지)
반드시 영어로 문의하실것 ☎ : 534－0563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George town
○작년도 매상 $270,000
○로타리오 년 $8,000(순이익)
○공중전화 년 $600
좋은 리스. 렌트 600불
☎ 1－877－6463 Mr. 김 883－4550 김영창

성업중인 스토아 급매합니다
아스킹 $79,000＋스탁
☎ : 633－7222 다운스뷰 에어리아

바쁜지역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연매상 $200,000
Call Cliff or Joe, ☎ : 763－5161
Cimerman Real ESTATE LTD.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집안사정으로 급히 버라이어티가게 팝니다.
렌트 $570(월) 리스 5년 + 5년
주매상 $5,200 ☎298－7635(Mr. 정)

A. E. LEPAGE LTD.
☎ : 741－9170 미세스 우

①카페테리아(테이크 아웃 비지네스)
주5일간 오픈, 주매상 : $6,000
가격 : $230,000, 리스 : 12년

②SMOKE & GIFT SHOP. (전망좋고 시간짧은 사무실 빌딩 안)
주5일간 오픈, 가격 $75,000
리스 : 6년＋5년
여자 혼자서도 운영 가능

③SUBWAY통로에 위치한 COFFEE, NUTS, CANDY SHOP
가격 : $42,000, 월매상 : $7,000～$9,000
리스 : 3년+5년+5년

④그로서리 스토아(SHOPPING CENTRE내)
년매상 : $840,000, 가격 : $330,000
리스 : 1990년

기막힌 투자전망 좋은리스
햄버거 샆과 도너츠 샆(오샤와지역)
☎ : (1)～668－5868(B), (1)～668－2484(R)
Mr. Charles B. Rycraft
D. W. Mcquay Realter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000 렌트 : $515 (전기포함)
☎ : 694－7848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이익높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위치 : Queen St. E.
아스킹 : $129,000＋스탁
9.5% First Mortgage, 1994
☎ : 461－0225(Peter Tong)
Atwood Hou Real Estate LTD.

세탁물에다는 표를팝니다(1～8번)
노란색(Dry & Laundry용)
오후4시～8시반 ☎ : 742－2092(Mr. Kang)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급매
가격 : $20,000＋스탁, 비데오 머신도 있음.
1430 Dundas St. W. (Gladstone 코너 : 관심있는분 내방바람)

그로서리 포함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람
☎ : 844－6741

하우스 렌트

가구달린 1 Bedroom 3개월간(3, 4, 5) 세놓음
DON MILL지역 월 $300
☎ : 225－2077

DUPONT ＋DOVERCOURT
사무실 렌트합니다.
(300sq. ft. 의 사무실과 500sq. ft. Reception Space가 있음) 한국일보사내 2층.
문의처 : 533－2364 미스 박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번역및통역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번역 통역 CHARLES YU(유죄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악기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 : 221－5441
미스타 이

PEOPLE'S
(상업용, 가정용 냉동기)
499－1203
미스타 원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사 진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탁 619 BLOOR ST. W.

새 한 칼 라 현 상 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8
50 BLOOR ST. W. ☎ : 967－7121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미용실 377 ALBION RD.
☎ : 741－7829(김조자)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B) 248－2957
(ISLINGTON과 KIPLING사이) (R) 247－6875

매매 부동산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A. E. 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황용현 부동산 ☎ : 361－0880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식품점

고 려 식 품 ☎ : 531－2242
680 Bloor St. W. Tor.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한 국 식 품
본 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서 부 : 1054 ALBION RD. 742－7711
영업시간 : 10AM～10PM, 정기휴일 : 화요일
동 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월, 화, 수 : 9AM～10PM, 목, 금, 토 : 9AM～12PM
일요일영업 : 11AM～7PM
※배달도 가능합니다.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master charge THE INTERBANK CARD　VISA®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 368－9018 임 태 호

안내 광고 문의는
☎ : 533－2361

식 당

Choi's Restaurant
▪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 · 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4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3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안내광고
533 : 2361～3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654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 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 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3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 1433. (R) 493－8792 송 창 섭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한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8(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어정용)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자동차 매매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관현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67－5605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Big Seven
678 Bloor St. W. ☎530－0523

Mr. 오 선물센타
100 City Centre Dr. Square One
Shopping Mall, Miss. ☎ : 275－2187

건축·설계

K C ENGINEERING INC.
☎ : (416) 624－4319
COMPLETE BUILDING DESIGN & PROJECT MANAGEMENT
건축설계, 공사감독
공사견적, K. C CHUNG P. ENG
STRUCTURAL ENGINEER

신용조합

한 인 신 용 조 합
BLOOR ST. W. TOR. ONT. M6G 1L4
☎ : 533－9387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A. Firm Accountant ☎ : 661－1819

태 권 도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쇼햄한글학교
☎663－1178

스포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약 국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master charge THE INTERBANK CARD VISA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임)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 주 보 • 명 함 • 청첩장 • 책 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종 대

스피디인쇄소 ☎ : 535－3520 곽 호 중
619 Bloor St. W.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 789－7352
대표 이인용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K A L : 862－8250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共同주택自營會 폐지키로
入住者회의·自治관리機構 분리

건설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 자치관리권을 2원화하여▲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와▲집행기관인 자치관리기구를 분리하도록했다. 이에따라 현재 의결권및 집행권을함께갖고있는 자영회는 폐지키로하고 관리비의징수등 모든집행업무는 자치관리기구의 권한과 책임하에수행하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문관리자를고용하여 규정하도록했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4백82개소에 달하는 전국의 공동주택단지중에서 정부회사에 관리를 위탁한 곳은 불과 18개소뿐이고 나머지 3백85개소는 자치관리를 원하고있으므로 자영회가 의결및 집행권등 관리권을 도맡아 행사하면 부조리가 생겨날 우려가 많기때문에 2원화하기로 한것이다.

流星의 賊 <31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⑫

계남이 고향에 돌아가 살기를 결심한 것은 임진년 정월, 이때 계남의 나이는 29세, 아버지 홍자수의 나이는 55세. 마땅히 효도(孝道)를 위해 봉친(奉親)해야할 사정이긴 했다. 그러나 이명이

『입신양명도 또한 봉친이니라. 듣건대 정실에 수삼명 형제가 있다고 하는데 봉친은 그들에게 맡겨도될 일이 아닌가. 자네는 서출이어서 고향에 있으면 갖가지 수모가 많을수 없을텐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하고 타일렀다.

『효도에 적서가 있사오리까. 수모는 어머니 대부터 받아 오던 일, 새삼스럽게 괘념할 것이 못됩니다.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도 전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읍니다』

계남의 각오가 굳은 것을 본 이명은 다만 다음과 같은 말을 보탰다.

『안성과 한양은 홍공의 걸음으로선 하룻길이 아닌가. 종종 한양에 와서 내 누이를 돌봐주도록 하게』

이명의 누이란 곧 숙랑(淑娘)을 말한다. 계남은 숙랑의 보살핌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뿐만아니라 많은것을 배웠다. 숙랑은 벙어리이긴 하지만 학문이깊었다. 만일 벙어리가 아니었더라면 허난설헌(許蘭雪軒)과 쌍벽을 이룰 여류문인이 되었으리라. 특히 시문에 탁월했다. 계남이 일본으로 떠난후 수십수의 상문가(相聞歌)를 숙랑이 지었는데 그가운데 다음과같은것이 있다.

『三更秋花明月下(삼경추화명월하) 淩邦萬里我想卿(왜방만리아상희) 良人若解深閨怨(양인약해심규원) 無碍水陸夢中來(무애수륙몽중래)』

그런 까닭만이 아니라 계남의 숙랑에게 대한 애착은 깊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답이 되었다.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형님. 순일(旬日)에 한번은 다니러 올것이고 매야몽중(每夜夢中)엔 이곳에 있겠나이다』

이영은 그 대답을 듣고 흐뭇해 했다.

『그러나 형님』

하고 계남은 말했다.

『저 생각으론 일본이 아무래도 가만있지 않을것 같습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기만 합니다. 일본이 덤벼든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문신은 묘당에서 싸우고 무인은 병(兵)을 믿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력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운명에 맡길 일이지』

『형님께선 상감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수 있지 않겠읍니까』

『그건 홍공이 모르는 말이네. 충언(忠言)은 상대방이 필요로할때, 비로소 보람이있는것이고 국책(國策)에 관한 일은 자리에있는 사람만이 할수있는 일이다. 그렇지않을때 충언이나 헌책은 외람한말로 되어 생명을부지하기가 어렵다. 왜진이 왜 말문을하고 자네 또한 소신을 펼수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지않느냐. 난세(亂世)를 산다는것은 실로 힘겨운일이다. 게다가 임금은 이미 태평에젖어 색(色)과 주락(酒樂)이외는 돌보질 않는구나. 옛날의 그사람은 아니. 통탄할 일이다』

이영의 말은 이처럼 무거웠으나 곧 주효를 벌려 『오늘밤 우리 숙랑을 끼워 기쁘게 지내자구나』 했다. 평생을 음지(陰地)에서 지내는데도 이명의 성격과 기량엔 구김이 없었다.

인사말씀

교민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인사가 늦었읍니다마는 본인은 토론토 교민가정의 식생활에 보다 충실하게 봉사코자 지난 10월부터 L.A.소재식품 수입상사 D.Y.(사장 강문웅)의 캐나다 동부총판(대리점)을 맡아, 다음 여러 품목의식품을 취급하고 있사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업체는 고객 여러분을 위한「최량의 식품을 최대의 봉사」를 표어로 삼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2월26일

D.Y.총판 오 호 현 삼가

※특히 요즈음 토론토 교민에게 인기 독점인 D.Y.쌀 가주미는 최고품질로 절찬리에 최저가격으로 판매중에 있읍니다.

D. Y.본점에서는 생산공장을 갖고 아래와 같은 30여 종류를 직접 생산하고 있읍니다.

★각종국수종류(우동국수. 물국수. 막국수. 소면국수등)

★떡종류(떡국. 떡뽑기)

★새우젓등 모든 젓갈종류

★고추가루

★고추장. 된장

★마른반찬

★밑반찬

★찹쌀

★모든묵종류(도토리묵등)

★당면

★멸치

D. Y. IMPORT CO. 749—0579 오 호 현

2ND CLASS MAIL NO. 5248